

신념을 가지고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은 고된 시간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 믿음 위에 강한 실천 의지가 더해질 때  
그것은 비로소 누군가의 삶을 이끄는 신념이 됩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라는 청주대학교의 신념은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을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빛나는 내일과 소중한 꿈의 실현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이 만든 신념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력의 땀방울로,  
중부권 최고의 명문사학이라는 자부심으로  
청주대학교가 비옥한 교육의 밭을 일구겠습니다.



WOW는 '세계를 향한 창  
(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름.

와우청대

WOW CHEONGDAE

은은한 향기를 지닌 선비의 굳은 신념과 같이  
부드러움과 강직함을 겸비한 난초처럼  
내면의 지혜와 슬기를 가꾸는 우리, 청대인



**Student First**

청주대학교,  
대학 본연의 학문적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다

**청인보淸人譜**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박구병 동문  
코레일 단양역장 김정희 동문

**특별대담- 융복합의 시대를 논하다**

건축과 공예디자인의 만남,  
인간의 삶과 공간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가?  
건축학과 김미연 교수 & 공예디자인학과 윤상희 교수







## 이웃사랑 가득한 축제 현장에서 나눔의 기적을 시작합니다

캠퍼스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집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한숨을 지우기 위한 청년의 도전으로 채워집니다.  
축제의 현장은 그렇게 새로운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물총놀이에서, 사랑의 놀이터에서  
청대인은 동심으로 돌아가 온전히 그들과 함께 즐거운 한나절을 보내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솜사탕과 팝콘과 장미꽃을 팔고,  
그렇게 모은 힘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축제의 현장에서  
청주대학교는 진정한 나눔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함께 웃어야 좋은 세상이듯,  
지역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5월 24~26일까지 3일간 열린 우리대학의 '우암 대동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나눔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종합운동장에 물총놀이 기구와 에어 바운스 놀이터를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00여 명을 초청해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직접 만든 솜사탕과 팝콘 등을 팔아 지역 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성금을 마련하는 '2016캠퍼스 나눔 도전-우리학교 나눔 명문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와우청대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6 SUMMER VOL. 232

청주대학교 소식지 (와우청대)의 '와우(WOW)'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와우산'과 청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의성어 '와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와우청대

2016년 여름호(통권 232호)  
발행일 2016년 7월 29일  
발행인 김병기  
편집인 이상철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촬영 이원재  
취재 이은형  
가격 4,000원

## Contents

- 02 총장실에서 온 편지
- 04 CJU Focus 청주대, 84억 원 투입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외

- 진심眞心,  
오직 학생을 향하다
- 08 Student First 청주대학교,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다
- 12 Special Interview 세계 최초 트랜지스터 기술 개발한 반도체공학과 오대례사 교수
- 14 Special Issue 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과제

- 명문名門,  
이름을 남기다
- 16 청인보淸人譜 제1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박구병 동문
- 18 청인보淸人譜 제2장 코레일 단양역장 김정희 동문
- 20 청인보淸人譜 제3장 91일간 13개국 돌며 학교 홍보한 이용성 학생

- 돌입沒入,  
진리를 탐구하다
- 24 특별대담- 융복합의 시대를 논하다 건축과 공예디자인의 만남, 인간의 삶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가?
- 28 진리를 찾는 사람들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을 만드는 힘, 태양광연구소
- 30 책에서 배우는 지혜 읽는다, 그럼으로 내 사유는 꽃이 된다\_ 국어국문학과 임승빈 교수

- 실천實踐,  
세상을 밝히다
- 34 지역과 어깨동무 청주대학교, 충북 체육의 대표선수가 되다
- 36 지식과 재능의 선순환 직지를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 <우리> 제작한 청주대학교 동문들
- 38 나의 세계문화 순례기 중국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후기\_ 중국통상학과 이한솔

- 소통疏通,  
오늘을 전하다
- 42 단신뉴스 청주대, 특성화사업단 공식 출범 외
- 44 인물뉴스 문석기 교수,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선출 외
- 46 명사들과의 만남 조현일 (주)그린광학 대표이사 명사특강 외

- 48 발전기금 안내 발전기금 종류 및 기부자 예우 안내

# 여름.





여름처럼 뜨거운  
도전과 열정의 에너지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 청주대학교



뜨거운 여름의 에너지가 청주대학교 캠퍼스를 가득 채우는 요즘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마주하는 한여름의 캠퍼스는 짙은 녹음이 장관을 이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든 캠퍼스를 거닐며 학생들이 이곳의 진정한 주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청주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지난해 가을 총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저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대학의 비전과 목표가 정보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2월까지 총 84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대대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대학은 앞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략적 경영정보 제공과 학생 중심의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교육혁신시스템까지 구축된다면 교수는 최적의 수업설계를, 학생은 맞춤형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갖춰질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에도 꾸준히 힘을 쏟아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것이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래창조관 내에 학생창업관을 새로이 오픈하였습니다. 또, 지난 1학기 동안 1,700여 명의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실천 취업캠프는 학생 스스로 진로설정부터 직무선택에 이르기까지 취업의 전체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런 모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학생의 미래가 곧 우리대학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청주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대학교를 항상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여러분!  
'광복 1호 대학' 청주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름처럼 뜨거운 도전과 열정의 에너지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청주대학교를 변함 없이 응원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중부권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김 병 기

김병기 총장, 스승의 날 기념행사 참석



지난 5월 10일 김병기 총장은 교내 분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교무위원들과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스승의 날 꽃 달아드리기, 총학생회장 인사, 총장 말씀, 촛불 점화, '스승의 은혜' 노래 제창, 케이크 커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오경근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간부 모두 김병기 총장님을 비롯한 스승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며 "학교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총장은 "총학생회의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간직해 저의 캐치프레이즈인 '학생이 행복한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병기 총장, 중국 수도사범대학 등 방문



김병기 총장이 지난 6월과 7월 중국을 연달아 방문하는 등 7개 대학과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6월 9일에는 중국 수도사범대학 과덕학원 왕만량 총장 등을 만나 파견 프로그램과 재학생의 한·중 합작영화 촬영지원 등을 협의한 데 이어 6월 20일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합작과 영화학과 교류 협의를 위해 방한한 중국 치박직업학원, 청도농업대학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또, 7월에는 중국 서경학원과 중서호텔관리학원, 해구경제학원, 광둥해양대학 등과도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김병기 총장은 "세계 명문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더해라도 해외 대학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시스템을 도입하다

## 청주대, 84억 원 투입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우리대학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지난 5월 23일 우리대학은 김병기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세미나실에서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보화컨설팅 사업자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은 앞으로 4개월간 학교의 비전과 목표가 정보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최적의 실행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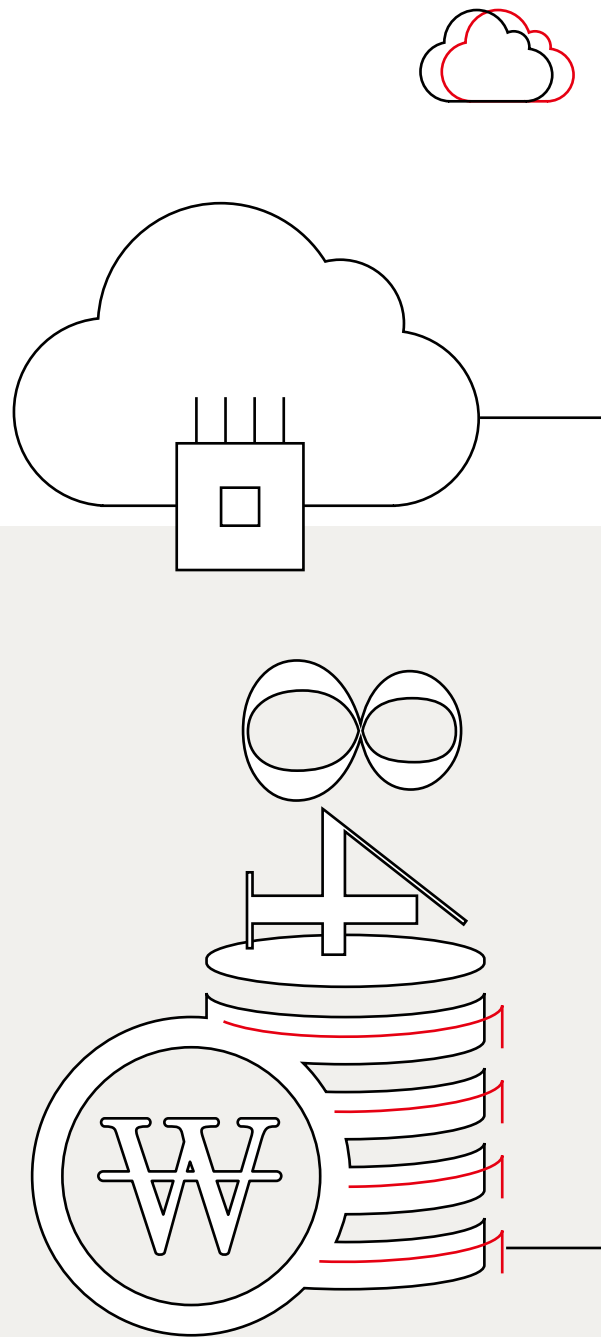
학교 측은 삼일회계법인의 체계적인 컨설팅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과 규정 개정, 업무조정,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등의 단계별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IT 인프라 재정비 사업 등 2018년 2월까지 총 84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신속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략적 경영정보 제공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학내 구성원 중 교수들은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통한 교육·연구에 역량을 집중해 대학 이미지 등이 제고되는 효과를, 학생들은 학사 전(全) 주기에 대한 자기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학습의욕과 생활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직원들 또한 저효율 업무를 탈피한 고부가가치 업무로의 역량전환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즉,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앞으로 ▲고객지향적인 조직 구축 ▲업무중복 개선 ▲관리비용의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총장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우리 대학의 미래를 탈바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의 효과

총 84억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신속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략적 경영정보 제공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고객지향적인 조직 구축 ▲업무중복 개선 ▲관리비용의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수준의 디자인 명문으로 자리매김하다

## 청주대, CUMULUS 가입 및 디자인 부문 세계랭킹 12위

우리대학이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예술·미디어 대학교 연합체인 CUMULU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Art, Design, Media)에 가입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대학의 디자인 파워를 다시 한번 알렸다. 1990년 설립되어 핀란드 헬싱키에 본부를 두고 있는 CUMULUS는 디자인, 예술, 미디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들이 모인 연합체다. 현재 49개국 226개 대학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대학은 인증된 회원교의 가입 추천과 이사회의 까다로운 심사 등을 거쳐 지난 4월 정식 가입절차를 마치고, 영국 노팅엄에서 열린 CUMULUS 총회 및 컨퍼런스에서 가입인증서를 받았다.

이로써 우리대학은 미국의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 영국의 왕립예술대학, 네덜란드의 델프트공과대학, 중국의 칭화대학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디자인 명문대학 반열에 오르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CUMULUS에 가입한 대학은 우리대학과 서울대 단 2곳뿐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1일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인증기관인 독일 iF(Industry Forum)에서 집계한 2016 전세계 디자인 대학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하며 기쁨을 더했다. 이는 2015년 기록한 21위보다 9계단이나 수직상승한 결과로, 우리대학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자인 명문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번 성과와 관련하여 산업디자인학과 조성배 학과장은 "우리대학이 최근 CUMULUS에 가입한 데 이어 세계 디자인 대학 랭킹 12위에 오른 것은 산업디자인학과가 국제 디자인상을 9년 연속 수상하는 등 교수와 학생, 동문 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 세계 최고 권위의 CUMULUS

1990년 설립되어 핀란드 헬싱키에 본부를 두고 있는 CUMULU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Art, Design, Media)는 디자인, 예술, 미디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들이 모인 연합체로, 현재 전 세계 49개국 226개 대학이 가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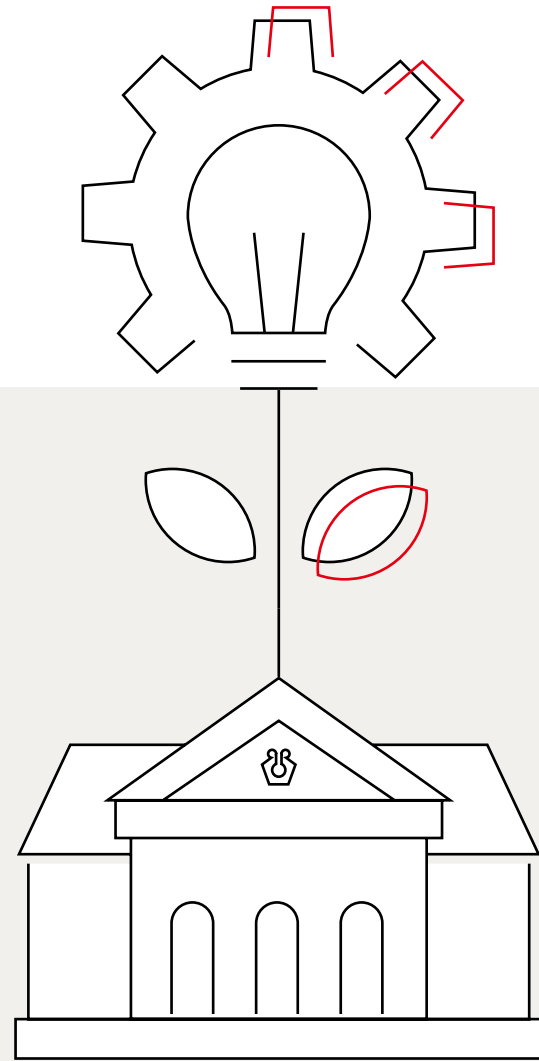
성공 창업을 위한  
공간지원에 나서다

## 청주대, 창업전용공간 '학생창업관' 설립

우리대학이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창업전용공간인 '학생창업관'을 설립하는 등 창업활동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5월 26일 우리대학은 김병기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오경근 학생회장, 창업동아리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창업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창업교육센터 내에 223㎡ 규모로 설치된 학생창업관은 앞으로 37개 창업동아리 소속 회원 240여 명과 재학생들이 이용하게 된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업 아이디어 등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인 학생창업관을 개소한 것을 계기로 창업문화 조성과 지원프로그램 강화, 기업가정신 함양 등 성공창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우리대학 학생창업지원단은 학내 미래창조관에서 충청권 산학협력중개센터와 함께 '제4회 창업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총 55개 참가팀 가운데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9개 팀이 경합을 벌여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을 각각 선발했다. 입상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각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러한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인지 최근 우리대학 창업동아리 세 팀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이 주관한 '도전 K-스타트업 2016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의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병기 총장은 "청주대 학생들이 학생창업관에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등 창업에 대한 실행력과 성공 가능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도 '실학성세'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성공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우수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휩쓴 청주대학교

우리대학은 충청북도지방중소기업진흥원이 주최한 '2016년도 우수 창업동아리 활동지원사업'에도 총 11개 동아리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충청북도지방중소기업진흥원은 충북 내 대학에서 활동 중인 창업동아리 중 24개 팀을 선정하고, 팀별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 진심眞心 오직 학생을 향하다

학생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학. 그래서 학생 모두가 행복한 대학. 존중과 배려로 오직 학생을 섬기는 진심이 학생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청주대학교의 힘입니다.

08

**Student First**  
청주대학교,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다



12

**Special Interview**  
세계 최초 트랜지스터 기술 개발한  
반도체공학과 오데레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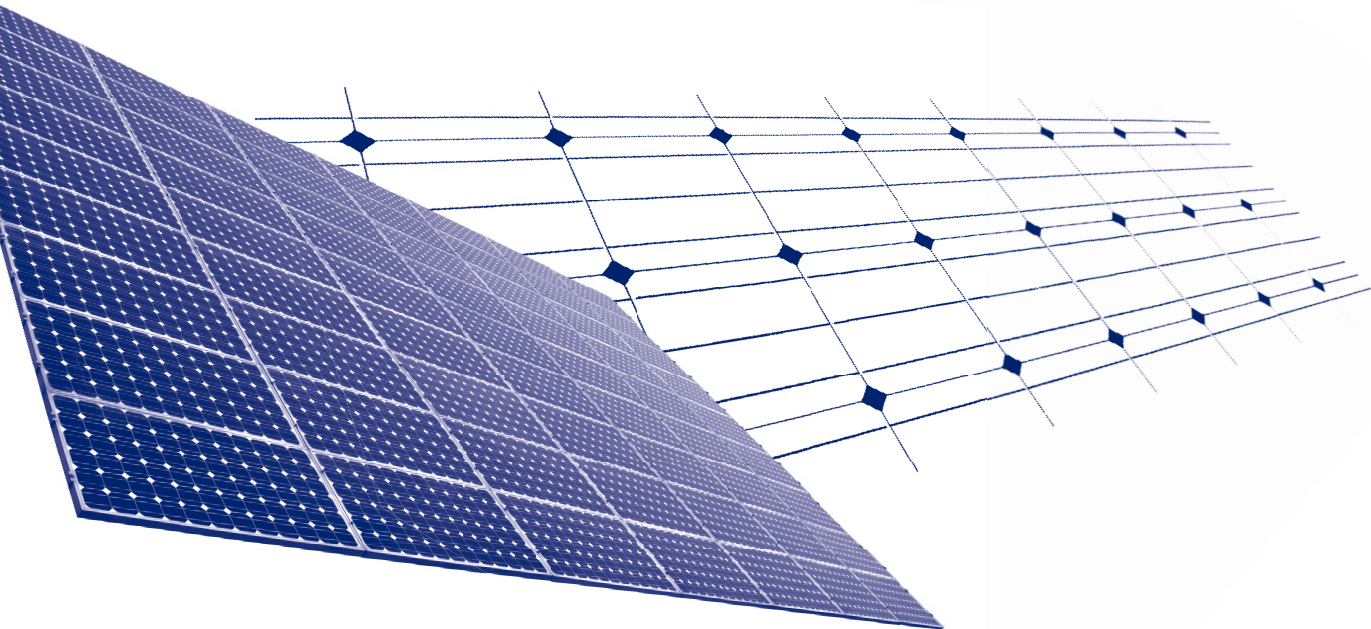


14

**Special Issue**  
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과제







청주대학교,  
대학 본연의 학문적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다

총청권을 대표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열정과 의지가 곳곳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우리대학 교수진들이 거둔 연구성과에 양적, 질적인 변화가  
감지되면서 우리대학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지가 발표한 '2016 인덱스  
교육기관 순위'에서 우리대학이 충청권 사립대학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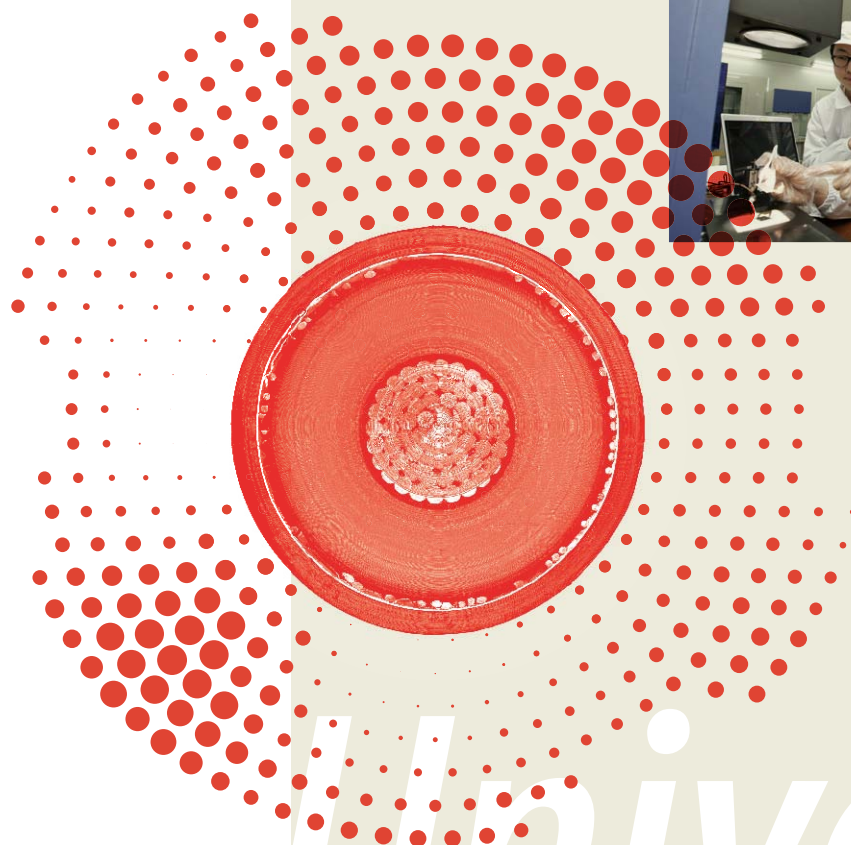
Research-1위  
oriented  
First

2016년 '네이처 인덱스'  
교육기관 연구경쟁력 충청권 사립대학 순위

세계 최초 절연물질 전기 스위치 동작하는  
반도체 센서 기술 개발(오테레사 교수)

교육부 주관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과제 수(전국 대학 4위)

5개



Univers

연구를 통해  
인류의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하다

인류의 발전은 개인의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그 호  
기심이 쌓아 올린 지성의 탑이 높아지고 또 연결되어 지금  
의 우리를 있게 한다. 대학은 지적 호기심의 숲이다. 그 안  
에서 교수와 학생이 호기심을 더 많이 가질수록, 또 연구  
에 욕심을 낼수록 인류가 취할 수 있는 열매의 가짓수는  
 많아지기 마련이다. 지식을 창출하고 전달하며, 과거와 현  
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대학의 역할이 점차 '연구중심'  
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대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자유로운 학문공동체로서  
의 역할을 살리는 데 있다.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새로운  
발견과 연구의 지적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글  
로벌 무한경쟁시대, 지식기반 경쟁시대, 창조경쟁시대가  
두렵지 않은 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며, 세계적인 학문적 가  
치를 창출하는 대학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  
축된 대학의 경쟁력은 다시 개인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어 지식의 선순환을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연구 경쟁력이 지닌 선의의 힘이다.



### 총청권 사립대 중 최고의 연구 경쟁력을 갖추다

강의실과 연구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대학이 최근 연구 경쟁력 부분에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지난 4월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지가 발표한 '2016 인덱스 교육기관 순위(2016 Nature Index-Academic)'에서 총청권 사립대학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전 세계 5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학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총 16개 대학으로 집계됐다. <네이처>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하고 권위 있는 학술지로 평가받는 과학 저널이다. 이 저널에서 발표하는 '네이처 인덱스'는 68개에 달하는 국제 유력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 기관과 공동 저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총청권 대학 중에서는 KAIST, 충남대와 충북대, 공주대, 청주대에 이어 한국교통대, 한국교원대, 한밭대, 한남대, 순천향대, 배재대, 호서대, 건양대, 대전대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대학이 총청권 사립대학 중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올해 전국 대학의 연구 경쟁력 점수와 순위가 대체적으로 하락했지만, 우리대학은 점수와 순위 등이 모두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본부 측이 교수들의 논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꾸준히 시행해온 연구비 장려금 제도 등의 효과와 더불어 우리대학 교수들의 논문이 양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도 향상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우리대학은 교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교육혁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 한 예로 교육성과 환류체계(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수업별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도출돼 다음 학기에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는 등 맞춤형 학습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층 더 선진화되고 혁신적인 교수학습법을 통해 강의 및 연구 경쟁력에 힘을 더해 나갈 예정이다.

# Nature Index

### 세계 연구의 흐름을 주도하는 의미 있는 성과의 도출

최근 우리대학 교수들이 국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우리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여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지난 봄, 반도체공학과 오데레사 교수는 절연물질에서도 전기가 흘러 스위치가 동작하는 반도체 센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관심을 모았다. 태양광에너지공학과 김재광 교수 역시 차세대 이차전지 시스템을 개발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의 표지 논문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은 바 있다. 오데레사 교수가 개발한 절연물질에서 전류가 흐르는 트랜지스터 기술(양자터널링퀀텀점프 트랜지스터)은 극미량의 유해가스를 선택적으로 검출하는데 필요한 센서의 물리적인 전기적 한계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교수에 이어 학생까지, 전국 4위에 빛나는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선정

교수들의 연구성과에 보답하듯 재학생들의 성과 또한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이공계 학부생들의 창의적, 융합적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대학이 전국 대학 중 네 번째로 많은 총 5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학생들의 연구력 향상에 기대감을 갖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방향 유도에 관한 연구(컴퓨터정보공학과) ▲치아미백 후 재착색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치위생학과) ▲FLEX 센서를 이용한 보복운전 방지시스템(전자공학과) ▲무인기 안전추락 방지를 위한 낙하산기반 착륙유도장치 기초연구(항공기계공학과) ▲Hall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그리드 기반 Arduino 스마트 미터 시스템 연구(반도체공학과) 등이다. 이렇듯 학생들이 연구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그동안 우리대학이 산학협력특성화사업에 집중하여 꾸준히 지원해온 작은 성과이기도 하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과 믿음은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충분 조건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대학은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실질적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등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대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중부권 최고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담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연구를 통해 새로운 미래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다. ④

절연체에서도 전류가 흐르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고감도 센서를 위한 신경망회로에서 뉴런을 닮은 회로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오 교수는 '방막 트랜지스터 및 그 제조 방법' 등 3가지 특허 등록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센서와 투명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재광 교수가 개발한 차세대 이차전지 시스템은 이차전지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과 같은 소형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에너지 저장장치로 그 적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이 되면 지구상의 리튬 원료가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문제가 예견되는 바, 이를 대체할 이차전지 개발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여러 이차전지 가운데 에너지 밀도가 가장 우수한 리튬이온전지는 탄소계 음극, 유기 전해질, 리튬산화물 양극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기 이차전지는 원료수급에 제한이 없고 친환경적이지만 높은 자가방전이나 전지의 단락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김재광 교수가 이러한 유기 이차전지의 단점을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해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더 가볍고 빠른 충전율에 가격까지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절연물질에서도 전류가 흐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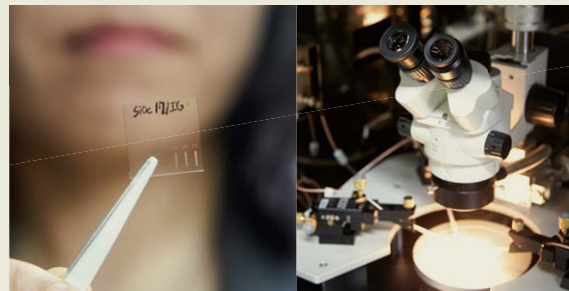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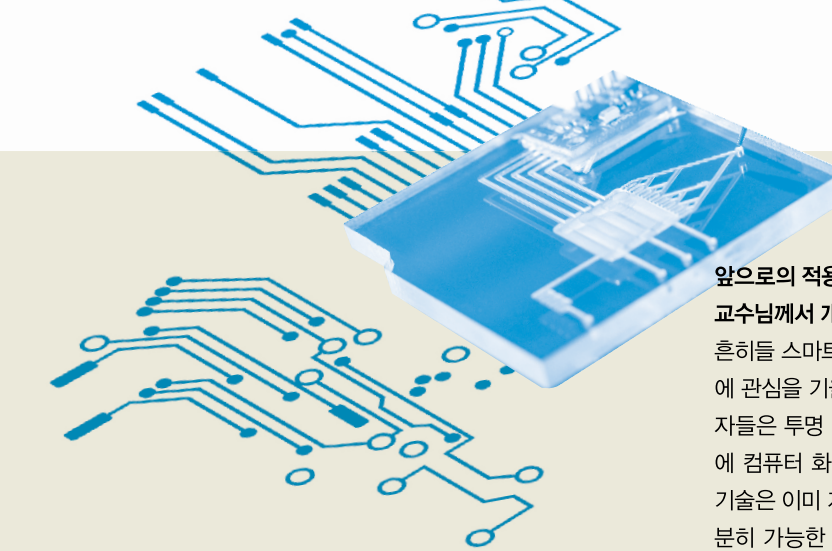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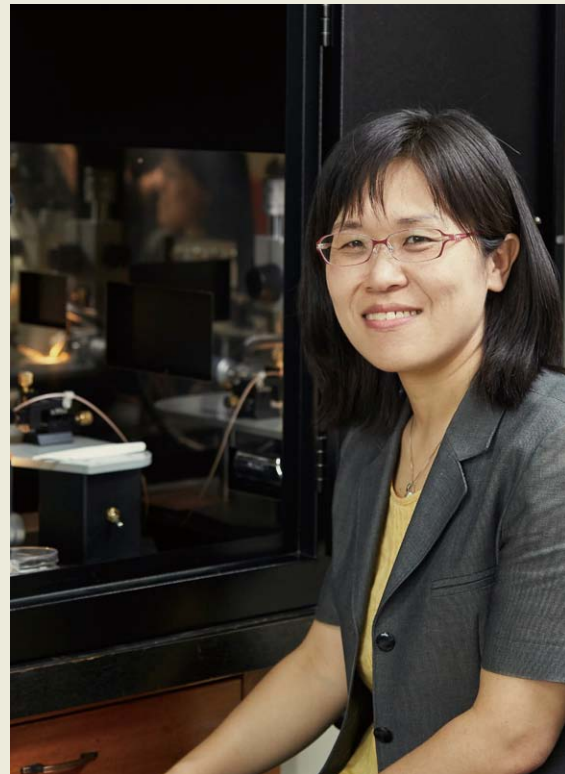
## 투명 트랜지스터 이야기

세계 최초 트랜지스터 기술 개발한  
반도체공학과 오데레사 교수

새로운 판을 펼쳐보고자 했던 한 학자의 호기심과 도전이 결국 새로운 성과를 낳았다. 반도체공학과 오데레사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투명 트랜지스터의 원천기술'이 그것이다. 실리콘 기반의 트랜지스터를 벗어나 다양한 연구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투명 트랜지스터. 이에 오데레사 교수를 직접 만나 이번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무한한 변주로 이어질지 들어보았다.

절연물질, 즉 전기나 열을 전달하기 어려운 물체에서도 전류가 흐르는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요.

저는 전기과학자입니다. 반도체와 트랜지스터 소자를 연구해왔죠. 절연물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1년 Post-Doc과정에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데스크탑에서 노트북, 또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온 반도체 칩 기술은 실리콘 기반의 트랜지스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0과 1로 구성되고 완성되는 수많은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웨이퍼의 모습으로 다양한 IT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기판을 바꾼 데에서 시작됩니다. 유리판에서 전기가 통하는 디바이스 기술 개발이 50년 전부터 연구되어 왔지만, 당시엔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10년 전부터 실리콘이 아닌 곳에서도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속도가 문제였죠. 이제는 투명 트랜지스터의 속도가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실리콘을 뛰어넘는 속도의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결국 '퀀텀 점프(Quantum Jump: 양자세계에서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뛰어오르는 현상)'를 실질적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리나 플라스틱과 같은 투명 트랜지스터의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개발을 마쳤고, 2년 전에 특허를 낸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적용 분야가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께서 개발한 기술이 어떤 곳에 쓰일 수 있을까요.

흔히들 스마트폰의 넥스트 기술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투명 디스플레이를 생각했고, 영화에서처럼 공중에 컴퓨터 화면을 띄우거나 투명 전자신문을 볼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경제성이나 효용성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분야로 기술개발이 옮겨간 상황인데요. 그 다음으로 떠오른 넥스트 기술이 바로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연구의 맥도 센서 기술과 닿아 있죠. 센서는 생체감지 수용체와 전기신호처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센서 연구는 생체감지 수용체에 대한 것입니다. 수용체에서 고감도로 감지되었다고 해도 전기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감도가 떨어지거나 전기소자 자체의 특성적 한계 그 이상의 영역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전기신호처리를 담당하는 최초의 단위로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바이오 센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병원에 떠돌아다니는 세균을 좀 더 미세하게 잡아낼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한데, 여기에 활용될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이 아니어도 될 정도로 속도문제를 극복할 수준에 이르렀으니 새로운 연구 영역이 추가된 셈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바이오 칩 기술과 저의 트랜지스터 기술이 만나면 이제까지의 센서 기술을 능가할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일렉트릭 스킨이 있습니다. 피부에 반도체 칩을 심을 경우 실리콘이라는 재료는 유기물질에 유해하기 때문에 캡슐을 씌워 활용해왔지만, 유연한 투명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원천기술이 지닌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보통 일반적인 전류전압법칙에 의해 동작되는 것이 트랜지스터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가 계속 나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실리콘을 월등히 뛰어넘는데도 스피드를 높이는 문제를 개선시켰다는 점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에너지 밴드와 그래프를 오버랩하니 설명이 되었고,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영역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퀀텀 점프가 이론적으로 있으리라고 이해는 되어 왔지만,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실험은 없었습니다. 실리콘이라는 재료로 퀀텀 점프를 설명해왔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퀀텀 점프를 실질적으로 증명한 작업이었다는 것이 제 연구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국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연구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연구자로서 발상의 전환은 정말 필요합니다. 절연체에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다면 이번 연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4년 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이런 데이터는 '언빌리블 데이터'라며 여러 차례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2년 전부터 비로소 인정을 받고, 학술지에 실리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학자로, 또 연구자로 활동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로지 기술로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 쓰여질 수 있는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의료, 생명 분야의 타 전공자들과 융합연구를 통해 반도체 센서를 적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PPM 단위의 고감도 센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①

## 청년의 지식과 열정으로 만드는 연구중심대학

지난 6월, 우리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5개 과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과제가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재 우리대학이 추진 중인 산학협력 특성화 지원사업이 있다. 학생 스스로 창의적, 융합적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5개의 과제들을 소개한다.



### 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과제

## 반도체 공학과

### Hall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그리드 기반 Arduino 스마트 미터 시스템 연구

아두이노(Arduino)와 Hall 센서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통신망을 이용한 계량 정보 제공을 통해 가격 정보에 대응함으로써 수용가 에너지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디지털 전자식 계량기, 즉 스마트 미터(Smart meter) 시스템을 설계하는 연구다. 소비자와 공급자, 사회적 측면에서 도입 후 각기 다른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

## 항공기계 공학과

### 무인기 안전추락 방지를 위한 낙하산기반 착륙유도장치 기초연구

드론 사용이 대중화,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성 측면에서 무인항공기의 충돌회피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추락을 대비해 낙하산이 탑재된 드론이 시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낙하산과 더불어 동력을 가진 프로펠러를 드론 내에 장착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로 자동항법 대신 RC 송수신기를 이용해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 전자 공학과

### FLEX 센서를 이용한 보복운전 방지시스템

최근 보복운전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간의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FLEX 센서를 이용한 5가지 간단한 동작을 정의하고, 해당 동작에 따라 자동차 후면 유리에 부착된 도트 매트릭스에 메시지를 표시한다. 비상등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한계를 FLEX 센서의 구분동작으로 좀 더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 치위생 학과

### 치아미백 후 재착색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

치아미백 후 치아 법랑질 및 상아질의 투과성(Permeability) 또는 착색에 대한 민감성(Susceptibility)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착색 유발 방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흐름성이 매우 뛰어난 레진 제재(Resin infiltrant)를 치아에 도포하여 미백 후 착색 방지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치아미백 후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만든다.

## 컴퓨터 정보공학과

### 시각장애인의 보행 방향 유도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인이 길을 잃거나 실수에 의해 경로이탈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시 보행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연구다. 시각장애인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존의 길찾기 서비스에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개발 및 시각장애인용 인터페이스 개발, 거기에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SBAS 응용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명문名門

## 이름을 남기다

묵묵히 걸어온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궤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말하는 청대인. 그들의 이야기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세상을 향한 열정과 지혜를 발견합니다.

16

청인보 제1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박구병 동문



18

청인보 제2장  
코레일 단양역장  
김정희 동문



20

청인보 제3장  
91일간 13개국 돌며 학교 홍보한  
이용성 학생





#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선임



안전은 배려이며, 안전교육의 핵심은 힘의 균형에 있다고 말하는 박구병 동문. 30년 넘게 안전전문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몸으로 체득해온 귀한 경험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그저 감사하다. 지난 5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더 촘촘한 안전장치와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서 안전에 대한 남다른 '격(格)'을 발견한다.

## 국민행복을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안전전문가

### 박구병 동문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기술본부장  
건축공학과 76학번

요즘처럼 안전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엔 안전관리에 좀 더 촉각을 세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설 안전뿐만 아니라 건설 안전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행동이 느려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경향이 있어 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집니다. 또, 더위에 철로가 늘어나 이음 부분이 충돌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엔 틈이 벌어지는 게 문제지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설계하고 시공하고는 있지만, 사람의 실수나 재료 결함 등의 변수가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안전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배려해야 비로소 안전한 사회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배려는 교육을 통해 알려야 하는데, 안전 교육의 핵심이 바로 힘의 균형이거든요. 넘어진다는 것은 몸의 균형을 잘못 잡았다는 거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시설 안전 역시 어떻게 하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 안전은 배려이고, 교육으로 알려야 하며, 그 교육의 핵심은 힘의 균형이라는 동문님의 '안전 철학'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오랫동안 안전관리 전문가로 활약해오신 경험의 응축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신문 기고나 방송을 통해서 전달할 기회가 꽤 많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조금만 달리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지요. 처음 삼성물산 건설부에서 시작한 일이 공업단지 현장의 안전 분야였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오늘까지 이어졌고요. 건설 현장에서 13년, 이곳 공단에서는 벌써 21년째입니다. 안전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대학시절에 구조전문가를 꿈꾸어서 그런지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 대학시절엔 연구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조전문가를 꿈꾸시던 그때, 동문님께서서는 어떤 청년이었는데지요. 지금 생각하면 건축공학을 공부한 것은 제 일생의 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제 일의 삶과 피가 되고 있으니까요. 2학년 때부터 3년 동안은 구조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책으로 공부하고, 밤에는 연구실에서 설계하면서 말이죠. 우리나라 콘크리트계의 최고 권위자이신 한천구 교수님께서 박사과정 시절 저를 지도해주셨습니다. 작년 롯데월드몰 바닥 균열 당시에 교수님께서 자문을 하셨고, 저는 기동에 문제가 있어 자문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렇게 현장에서 교수님을 뵈 기회가 종종 있어 저로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 지난 5월에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로 선임되셨는데요. 현재 어떤 일에 가장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임이사는 대표와 함께 동반 책임자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자리와 일의 중함을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본부를 이끌고 있는데, 특히 건설안전 분야가 제 업무 영역입니다. 국가의 건설안전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또 건설산업을 담당하는 발주처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들의 업무를 평가합니다. 특히, 설계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 설계인지를 DFS(Design for Safety) 평가표를 만들어 꼼꼼히 평가합니다. 민간 안전진단 회사와 유지관리 회사 전문가들에게 매년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 지난해 네팔 지진 당시, 지진피해 긴급 안전점검단장으로 네팔에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경미하지만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르게 서 있는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팔 지진 피해 현장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었고, 현재는 2층 규모의 작은 건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지어진 건물들의 내진 보강이지요. 그런데 대형 시설물과 학교시설, 소규모 취약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달라 제가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비용인데, 내진 보강을 하는 건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세롭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이 작은 부분이나마 제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더 안전한 나라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안전에 대한 '배려'를 지켜주시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



# 코레일 충북본부 최초의 여성 역장



'1988년 한국철도공사(현재의 코레일) 공채' 김정희 동문은 보기 드문 역장이다. 코레일 충북본부가 생긴 이래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역장인 것도, 변복이는 아이디어로 탁월한 마케팅 감각을 발휘하는 것도 모두 흔치 않은 면모이니 말이다. 역사와 철로 등의 대대적인 확장공사가 단양역의 외형적 변화를 가져왔다면, 취임 2년차에 접어든 김정희 동문은 고객과 함께 하는 '소통의 역' 단양역이라는 내면적 변화를 만든 주인공이다.

## 세심함과 유연함으로 만들어가는 '소통의 역'

김정희 동문

코레일 단양역장  
역사교육과 84학번

2년 전에 단양역장이 되셨습니다. 충북권에 철도가 다닌 이후부터 현재까지 115년의 역사에서 여성 역장 탄생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27년 전 처음 역무원으로 일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 임용고시가 갑자기 없어져 차선으로 택했던 직업이었고, 아직 제 일에 확신을 가지지 못해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제가 역장으로 근무하게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27년의 세월 중 15년을 역무원으로, 10년을 충북본부 내 계획, 인사, 관리부서에서 일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셈이죠. 처음엔 여자 역장이 왔다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봐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랬죠. 사실 역이란 곳은 철을 매일 대하고 다루는 곳이다 보니 매우 남성적인 곳이에요. 반면 고객과 대면하는 일도 정말 많은 곳이 역이죠. 여자 역장이 있는 역사인 만큼 무언가 차별화를 시켜보자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 말씀처럼 '매우 남성적인' 일터에서 유일한 여성 수장으로서 조직을 이끈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않은 것 같습니다. 입사 초기에 제천역, 쌍용역, 조차장역에서 근무했었는데, 특히 조차장역은 저에게 잊지 못할 역입니다. 98명 전 직원이 모두 남자인 그곳에서 조직혁신 업무를 맡아 진행해야 했었는데, 그분들과 소통하기가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의 이름과 얼굴을 다 외운 다음 멘투맨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택했지요. 여객열차가 다니지 않는 역이었지만, 수익률을 367%까지 올려 그 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어요. 어려웠던 만큼 보람도 컸고, 그때의 경험이 제겐 큰 밑천입니다. --- 역사를 둘러보니 여기저기 공사 중인 곳이 꽤 많던데요. 단양역 규모가 현재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건가요? 2030년 인구 수요에 맞춰 현재 우리 역도 변화하는 중입니다. 현재보다 2.5배 정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말쯤 2단계 복선화 공사가 완공되면 단양에서 청량리까지 1시간 8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2시간 15분 정도 걸리고요. 공사 규모도 커서 공사구간 안전 체크만 해도 오전 근무시간이 훌쩍 다 지나갑니다. 우리 역에는 매표, 운전취급, 마케팅, 전기, 시설, 신호, 통신 등의 파트 별로 약 40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과 매일 아침 소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무사고 무재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니까요. --- 단양하면 단양8경이 떠오르는데, 요즘엔 단양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역 분위기도 덩달아 줄어들 것 같은데요. 단양은 자연환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고수동굴이나 도담삼봉 등을 보러 오시는 중장년층도 여전히 많지만, 요즘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오토바이, 경비행기, 클레이 사격 등의 액티비티를 즐기러 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철도공사 상품 중 '내일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 25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죠.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제가 역장으로 부임한 그 해 겨울에 내일로 상품 판매전략을 바꿨어요. 누구든지 '내일로' 티켓 하나만 가지고 단양을 방문하면 단양 내 관광지에서 무조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요. 그랬더니 그 해 겨울에만 단양역 방문자 수가 5배나 늘었고, 또 그만큼 관광객 수도 대폭 늘었지요. --- 역장님께서 새로운 철도 상품을 기획하신 것과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단양 지역 주민들도 크게 반기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역과 주민은 상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볼 가치가 있지요. 단양역 앞에는 택시들이 늘 대기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들과도 협의를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드렸어요. 단양역을 통과하는 투어버스가 1인당 8만 원인데, 한 대의 택시에 1인당 2만 원에 4명을 태운다면 어떨까 하고요. 결과는 관광객과 기사님 모두 만족스러워 했지요. 덕분에 저희는 기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역사 앞을 청소해주시는 보너스도 받았고요. 마케팅사업부에서의 경험들이 한번씩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역장은 마케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역을 찾는 승객들과, 지역 주민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일과 생활을 더 즐겁게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역장이고 싶습니다. 역장으로서의 첫 근무지인 이곳 단양역에서 욕심을 내보려고 합니다. ㉠



# 학교 홍보하며 91일간 13개국 여행



스물 셋, 청년은 지금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갈증'을 꼽았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빗을 이미 알아버린 것이다. 여행이 길 위에서 마주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깨달았다. 길고 긴 '나 홀로 세계여행' 안에서도 언제나 더불어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했던 이용성 학생. 그의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이야기는 그래서 더 특별하다.

## 청춘의 갈증을 채워주는 나의 드넓은 세계

### 이용성 학생

전 세계 돌며 학교 홍보  
경영학과 3학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장학금 550만 원으로 13개 국가를 여행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진 도전이고 경험이란 생각이 듭니다. 워낙 여행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세계지도와 국기를 파는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주말마다 저희 형제들을 차에 태워 전국을 돌며 세상을 보여주셨죠.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혼자 여행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군 체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생각이 많았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심각하게 고민했죠. 결론은 더 넓은 곳에서 나를 만나보자는 거였어요. 여행경비를 만들기 위해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와 김포공항 라운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개월 동안 여행자금을 모았어요. 장학금을 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였어요.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 여행 내내 무거운 백팩을 짊어지고 다녔을 텐데, 가방 안엔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60리터짜리 배낭이었는데 무게가 대략 25kg 정도 됐을 걸요? 옷, 카메라, 외장하드, 중남미 여행 가이드 책자, 학교에서 제공해준 학용품과 현수막, 메모용 수첩, 비상약, 그리고 여행 중에 읽으려고 가져간 책 <책은 도끼다>와 <그리스인 조르바>까지.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 학교에서 제공받았다는 현수막과 학용품의 쓰임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여행을 계획했길래 학교 현수막을 들고 간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공익성을 갖는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항상 생각해왔어요. 비록 나 홀로 떠나는 여행이지만 청주대학교 학생들에게도 무한한 세상을 보여주고,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A4 한 장짜리 제안서로 정리해 무작정 대외협력팀을 찾아갔어요. 실장님께서 흔쾌히 현수막과 학용품을 제공해 주셨죠. 여행지에 도착할 때마다 학교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을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학용품은 여행 중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챙겨간 건데, 네팔 울레리라는 오지마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 91일간 돌러본 여행지가 궁금해지네요. 남미를 꼭 가고 싶었어요. 여행 전반부는 동남아시아에 머물렀는데, 홍콩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쿤밍에서 국제버스를 타고 28시간 만에 라오스에 도착했죠.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네팔, 인도를 여행하고 나니 경비가 모자랐어요. 잠시 귀국해 스키 강사로 열흘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시 남미로 향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경유해 드디어 꿈에 그리던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모두 돌아보고 왔어요. 작년 11월 25일에 출국했는데, 리우 삼바축제를 마지막 일정으로 2월 23일에 귀국했습니다. --- 20대 초반은 인생의 시간에서 오전 9시 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침에 만난 세상은 어땠나요? 여행자의 발걸음을 한참이나 멈추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팔의 아침은 평화로움의 정수였고, 해발 4,800m의 히말라야는 경이로웠어요. 페루 몬타나픽추에 올랐을 땐 비가 와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 정말 기적처럼 구름이 걷히고 마추픽추가 나타났죠.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기운이 남달랐어요. 오얀따이땀보라는 마을에서는 잉카인들의 건축물이 강한 자국이 되었어요. 그 옛날 그 큰 돌들을 산까지 옮겨 집과 수로, 신전을 만든 거잖아요.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은 지구상에 그런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나오는 곳이었어요. 이를 내내 달려야 소금사막을 통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신이 살 것만 같은 아르헨티나 피츠로이, 단박에 압도되었던 이과수폭포도 잊지 못할 곳으로 꼽고 싶네요. --- 그렇게 도전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남다른 것 같아요. 훗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대학 강단에 서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꿈을 심어주고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고, 그 전에는 항공사에서 인적자원 관리 업무를 해보고 싶고, 항공 승무원도 되고 싶어요. 승무원이 가장 먼저 이를 꿈이죠. 지금의 저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 '갈증'이에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거죠. 젊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



We are young!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뜨거운 오늘을 살고,  
 빛나는 내일을 준비하는  
**청.대.인**

방사선학과 4학년 이민경



**원자력대학(원)생 논문연구 발표회  
 우수상(한국원자력학회상) 수상**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이 공동 주관하고 전국 25개 대학 7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발표회에서 이민경 학생은 '고체비적검출기를 이용한 방사선치료용 양성자 선량평가'라는 주제로 우수상에 해당하는 한국원자력학회상을 수상했다.

창업동아리 '크레아레' 외 11개 팀



**'2016년도 우수창업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선정**

충청북도지방중소기업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지원 사업에 우리대학 창업동아리 11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 동아리는 크레아레, 맥킨스 글로벌, 500°C, 디자인오달, 더 프렌즈, 디자인쿠잉, NEMO HOUSE 등이다. 이들 동아리는 앞으로 창업컨설팅 및 코칭, 창업교육, 활동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건축학과 5학년 정육찬, 영화학과 4학년 황영훈



**개교 69주년 기념식 모범학생 표창**

6월 3일 청석홀에서 열린 우리대학의 개교 69주년 기념식에서 정육찬 학생은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계획건축 부문' 대상을, 황영훈 학생은 '제2회 중국 귀주 만복림 국제영화제'에서 2등상을 수상한 공로로 모범학생 표창을 수여받았다.

광고홍보학과 4학년 최지현



**'동상리몽 공모전' 대상 수상**

청년의 아이디어로 지역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과 청년간의 상호인식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북테크노파크가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지현 학생은 우리지역 업체인 ㈜휴럼에서 제작하는 갱년기 여성보조식품과 관련된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해 대상을 수상했다.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정우영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Winner) 수상**

우리대학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9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선물한 정우영 학생은 '3 in 1 Orient Plane'이라는 작품으로 본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각도 조절을 통해 다양한 용도의 목공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패 디자인으로 사용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신문방송학과 3학년 최윤아



**이천시 UCC 영상공모전 대상 수상**

경기도 이천시가 추진 중인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최윤아 학생에게는 이천시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됐으며, 수상작은 학교와 공공기관에 배포되어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의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 몰입 沒入

## 진리를 탐구하다

학문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는 대학, 지성의 너른 광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 본연의 자세를 지켜나가겠습니다.

24

특별대담-윤복합의 시대를 논하다  
 건축과 공예디자인의 만남,  
 인간의 삶과 공간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가?



28

진리를 찾는 사람들  
 '아시아 솔라벨리' 충북을 만드는 힘,  
 태양광연구소



30

책에서 배우는 지혜  
 읽는다.  
 그림으로 내 사유는 꽃이 된다:  
 국어국문학과 임승빈 교수





# 건축과 공예디자인의 만남,

## 인간의 삶과 공간을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가?

오늘날 대학과 산업현장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융복합의 기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일 것이다. 삶과 문화를 담는 공간이 어떻게 또 다른 생명을 얻어 재탄생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두 학문의 만남은 인류의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이에 건축학과 디자인의 소통과 융합을 대변하는 두 학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삶과 공간에 대한 새롭고 진지한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 공예디자인학과 윤상희 교수

윤상희 교수는 금속공예와 도자기공예의 전통 테크닉을 통해 실험적인 장신구를 만드는 현대 공예작가로, 또 다양한 산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제품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7회의 개인전을 비롯해 국내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해왔으며, 경상북도 문화재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 건축과 공예디자인이라는 두 개의 영역, 인류의 삶과 문화에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왔는가?

**김미연** 공예와 건축이 함께한 역사는 꽤 깊어요.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 이전에도 영국의 예술공예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모리스는 "수공예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었죠. "인간은 모두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지금도 동감하는 말입니다. 당대 건축가이자 예술가였던 그가 자신의 집 '레드하우스'를 지으면서 집 안의 모든 인테리어 소품과 생활용품 직접 만든 것은 무척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수공예와 효율적인 재료, 그리고 기술력을 접목해 생활에 유익하면서도 심미적인 제품과 생활공간을 창조하는 취지는 현대사회에,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도 유효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윤상희** 독일에서 바우하우스가 창립할 때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조각과 회화 같은 순수미술과 공예와 같은 응용미술이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건축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가 모여 고도의 산업생산을 만들어보려고 시작한 것이 이후 다방면에 걸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김미연** 모든 예술활동이 공예적 차원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이 주도하는 가운데 모든 예술이 공예적으로 통합되기를 원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공예디자인학과와 존재감이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건축학과 1학년 학생들은 바우하우스 이론과 공공디자인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할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 건축학과 김미연 교수

청주대학교 건축학인증 프로그램 PD를 맡아 5년 인증을 획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김미연 교수는 현재 '지역일착형 리빙플랫폼 창의디자이너 사업단' 단장을 맡아 생활공간 및 거주환경 분야의 융복합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환경부 주관의 국책사업인 '2016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 선정된 우리대학의 사업책임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윤상희** 공예디자인학과의 존재감을 말씀해주시니 무척 감사하네요. 공예는 나무, 금속, 유리, 섬유, 도자 등 재료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됩니다. 학생들은 재료에 대해 탐구하고, 재료를 잘 다루는 테크닉을 배우고, 형태를 만드는 기술을 깨우치고, 여기에 상상력을 덧붙여 세상에 없던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배우죠. 건축 공간 안에서도 이러한 재료들을 활용할 때 어떤 효과와 장식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또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통섭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새로운 소재를 공간에 시도할 수도 있게 되고요.

**김미연** 그런 이유로 요즘 건축학과에서도 재료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신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어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건축학과가 조금 더 유연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윤상희** 공예품도 원래는 손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범위의 것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산업공예와 예술공예가 합쳐지면서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공예디자인학과에서 다루는 범위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학과와의 학문적 소통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건축물은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데, 그 그릇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학문이 바로 공예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미연**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학문간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네요. 그동안 건축은 대량생산이라는 개발 위주의 패러다임을 고집해왔고,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들을 쏟아냈잖아요.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미덕인 양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되고 택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공개발은 지양하고 있어요. 이제 소규모 다수를 위한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을 개발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골목들이 늘고 있어요. 건축과 디자인간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세심하게 디자인적 상상력을 불어넣어 줄 시점이 온 거죠. 세종 행복도시의 경우 모든 건축물과 디자인, 간판까지 통합디자인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축과 디자인이 접목되어 개발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희** 물리적 뼈대를 잘 만들고, 공간 뼈대에 살을 붙이고, 이미지를 불어넣는 작업이 적절히 어우러져야 할 것 같아요. 신이 창조한 생물체가 각각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해요. 디자인 분야도 공간 형성의 초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 최대한의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과 디자인의 융합적 사고는 생활과 일, 문화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절실히 요구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 공예디자인을 아우르는 융합전문가, 어떤 세상을 열어야 할 것인가?**

**김미연** 그래서 우리가 리빙플랫폼 창의디자이너 양성사업단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학과, 도시설계학과, 공예디자인학과가 함께 모였으니 뭔가 일을 내야지요. 1학년 과정에서 지난 학기에 리빙플랫폼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학문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8월에 청주시 연초제조창에서 '아티스트 캐비닛'을 만들어 전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을 어떻게 해석해서 보여줄지 저로서도 기대가 큼니다.

**윤상희** 학생들이 2학년이 되어 3개의 전공을 교차 이수하게 되면 타 학문을 이해하는 깊이가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말대로 바쁘고 어려운 과정을 보내고 있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미연** 학생들이 진정한 융합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래요.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데에는 다양한 스토리가 필요한데, 우리는 융합전문가를 키워내야 합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 전문가, 공예디자인 전문가.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융합전문가 말이죠. 사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건 융합전문가거든요. 제도나 행정 전문가가 더 많아서 공간디자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획일화되고 창조적이지 못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융합전문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타 전공을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건축적 마인드가 있는 공예전문가, 또 디자인적 마인드가 있는 도시설계가처럼 말이죠.

**윤상희** 재료를 연구해서 사물을 만들다 보면, 자칫 너무 하나의 사물에만 집중하는 문제점을 갖게 돼요. 사물이 공간에서 어떻게 쓰이는데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공공적인 쓰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사업단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산업과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자연스레 몸에 배는 것 같습니다.

**김미연** 원래 인류가 시작된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종합예술인이었잖아요. 사회가 대량생산화되면서 분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된 거죠. 이제는 소수가 다양한 일을 해내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어요. 있는 것을 새롭게 고쳐 쓰며 생활하는 것이 큰 흐름이 될 것이고, 예술적 안목과 공예적 터치감을 겸비한 사람이 주목을 받고, 중심이 되는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희** 북유럽 디자인의 주요 재료가 목재잖아요. 건축부터 교육, 공공복지에 이르기까지 목재가 다양하게 쓰이면서 인간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죠. 물론 그 중심에는 공예가 있습니다. 공예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학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량생산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성, 자기의 존재를 부여하는 물건이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공간을 채우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건축의 기류도 서서히 함께 바뀌어나갈 수 있겠지요.

**김미연** 그리고 보니 건축학은 공대의 인문학이고, 공예디자인은 예술대의 인문학이네요. 두 학문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모두 처음 해보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지만, 건축과 공예디자인 두 학문이 인간의 삶과 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이 밀려옵니다.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①





# 태양광 에너지 연구로

##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다

###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을 만드는 힘, 태양광연구소

2008년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에서 태어난 청주대학교 태양광연구소는 우리나라 '녹색 에너지 전문가'의 산실이다. 현재까지 지역의 솔라 기업들을 위한 기술지원과 교육, 그리고 연구의 삼박자를 맞춰가며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탄소, 친환경 녹색산업의 핵심이 될 태양광 에너지의 모든 것, 청주대학교 태양광연구소를 찾았다.



취재협조  
태양광연구소장 김제하 교수

###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을 이끄는 핵심 연구소

태양이 인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지는 이미 오래다. 태양이라는 '대단한 에너지' 가운데 일부를 좋은 에너지로 만들어 인류의 미래를 밝혀 나간다는 것은 무척 매력적인 일이다. 특히 약자나 소외된 이들에게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분야. 또 지식 나들이 가장 확실한 연구 분야 중 하나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우리대학 태양광연구소를 진두지휘 하는 김제하 교수는 "태양광에너지공학은 태양을 밑천으로 후세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2008년 충북 지역에선 처음으로 설립되어 태양광 연구를 시작한 태양광연구소는 지난 10년 가까이 우리나라 태양광 에너지 연구와 기술 발전에 중심축이 되어 왔다. 태양광은 학제간 협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재료, 전기, 화학, 물리 등 관련 학문간의 협력이 용이한 청주대학교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설립 초기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태양광이 우리의 미래'라고 주장했던 충북 지역의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진천의 한화큐셀, 증평의 신성솔라, 음성 of 현대중공업 태양광모듈 등 대규모 공장을 비롯해 태양광 에너지 소재와 셀, 모듈, 패키징, 장비, 시스템까지 폭넓은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와 연구 협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지역사회를 위한 태양광 기술개발과 교육의 원천

이처럼 태양광 특구인 충북에서 태양광연구소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듈을 제품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고가의 장비들을 태양광연구소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전지 라미네이터, 솔라 시물레이터, 태빙머신, 3차원광학현미경, 플라즈마증착장비, 양자효율측정장비, 급속열처리장비 등의 최신 장비와 크린룸을 갖춘 우리대학 태양광연구소는 이들 기업에게 훌륭한 산업현장이 되어주고 있다. 또 해마다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솔라 페스티벌' 과정에서도 모듈 측정을 위해 우리대학 태양

광연구소를 찾고 있다. 한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역시 태양광연구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태양광에너지공학과 교수들의 지식과 경험은 기업에 전수되어 태양광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무형 태양광 교육, 태양전지 모듈 실무 교육, 태양광산업 패키지형 교육,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교육 등 연구소가 직접 계획한 프로그램 외에도 지자체나 정부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00여 명 안팎의 태양광 인력들이 우리대학 태양광연구소를 거치고 있다.

### 연구의 힘으로 대한민국 태양광 에너지의 미래를 열다

최근 태양광연구소의 두드러진 변화는 연구소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연구과제 진행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기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국 단위의 협력을 통해 국가과제를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과제로 기술개발에 몰입 중이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 외에 '저장'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분야 교수를 새롭게 영입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광 교수의 '이차전지' 연구와 강동원 교수의 '페로브스카이트' 연구가 대표적인 예다. 2016년은 태양광연구소가 충북을 뛰어넘어 전국 태양광 에너지 연구의 중심임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해로 남게 될 것이다. 오는 9월 청주에서 열리는 솔라 페스티벌에 이어 10월에는 충북 오송에서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전국 단위의 솔라 학술대회가 없었기에 더욱 기대를 모으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의 태양광 분야 전문가들이 아시아 솔라밸리를 꿈꾸는 충북에 모두 모인다는 의미에서 뜻 깊은 시작이 될 것이다. 특히, 이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태양광연구소는 '잡 보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들은 태양광에 관련된 기업을 잘 알지 못하고, 관련 기관과 기업은 어느 학교에서 어떤 태양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태양광연구소는 앞으로도 학생과 기업, 대학과 기업, 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주면서 '그린에너지 전문가'의 숲을 풍요롭게 가꿔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④



# 읽는다 그림으로 내 사유는 꽃이 된다

국어국문학과  
임승빈 교수 편



사유는 행하면 할수록 풍부해져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임승빈 교수는 인문학적 사유는 맥락적 사유에서 일어나고, 이는 체험적 만남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질문하는 책 읽기'를 권한다. 그리고 시인의 목소리로 말한다. 책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고.

## 운명처럼 만난 청춘의 언어, 詩

그 사람의 책장을 보면 지나온 삶의 결이 느껴진다. 인문대학 517호. 임승빈 교수의 연구실에는 1천여 권을 훌쩍 넘는 책들이 소곤거리고 있었다. 만지면 바스락거리며 낙엽처럼 떨어져버릴 것만 같은 오래된 시집들이 세월의 냄새를 간직한 채 지금의 책들과 이웃하고 있었다. 문학인으로, 시인으로 살아온 세월. 임승빈 교수의 삶을 채우고 지탱해 온 것은 무엇이였을까.

“산다는 것은 곧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에는 경험적 만남과 체험적 만남이 있지요. 경험적 만남이 외향적이고 보편적인 만남이라면, 체험적 만남은 내적인 만남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것은 체험적 만남인 거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보다 세계를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가 '만남'이라는 화두로 삶에 대해 힘주어 말할 수 있기까지 그 또한 두 가지의 만남 사이에서 술한 발걸음을 내딛고 옮겨왔다. 그리고 책은, 문학 작품은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사유의 힘을 꽃피게 해준 운명 같은 것이었다. 김소월 시집, 동화책, 알개전만 읽던 중학교 시절을 지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와 소설을 만났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에게 있어 문화적 충격의 시기였다. 학교 도서관에서 버려지는 책 가운데 발견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는 소설에 눈을 뜨게 해주었고,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는 사유하는 재미를 선물했다. 국어시간에 외웠던 500여 편의 시들은 그를 시인의 길로 안내해준 경험적, 체험적 만남이었다. '시극(詩劇)' 연구에 몰입하고 있는 오늘을 있게 한 것은 10대의 끝자락에 말랑한 감성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책과의 만남들 덕이다.

## 문학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어야 한다

임승빈 교수는 체험적 만남을 가장 진하게 맛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책 읽기'를 권한다. 문학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책 읽기가 즐거워진다면 10여 년 전 소설가 이청준 선생과의 작은 일화를 떠올렸다.

“평소 이청준 선생을 참 좋아해요. 그분 작품을 읽다 보면 아, 정말 약이 올라요. 사유의 깊이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강연자로 청주에 모실 기회가 있었어요. <남도사람> 연작은 영화 '서편제'의 원작이고, <벌레 이야기>는 영화 '밀양'의 원작이잖아요. 그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용서라고 보고, 제가 물었지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서는 무어나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용서를 알면 왜 쓰겠냐. 모르니까 쓰고 또 쓰는 거지.” 그 대답에 무릎을 쳤습니다.”

작가는 쓰는 행위로 세상에 질문을 하고, 또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독자들은 그것을 읽으며 자신에게 질문하는 가운데 무수한 체험적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 순간이다. 임승빈 교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라며 독서를 통해 맥락적 사유에 눈 뜨는 자신을 발견하기를 당부한다.

## 사유의 폭을 넓히기 위한 토론과 탐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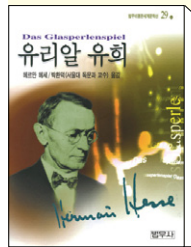
현재 '2016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 부쩍 더 늘었다는 임승빈 교수는 책을 읽은 후의 토론활동이야말로 사유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행위라고 말한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다른 이의 생각을 통해 나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다른 이의 입을 통해 톡톡 튀어나올 때 묘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읽는 것 못지않게 생각 나누기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선생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책 읽기의 내용이 쌓여 출판사마다 혹은 번역가마다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책 읽기의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그의 빼곡한 책장 사이로 1950년대에 출판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한 권이, 바닥부터 쌓인 책 더미 위엔 2000년대에 출판된 같은 제목의 책 두 권이 놓여있었다. 실존과 본질. 이 두 개의 단어가 얼마나 많은 우주를 품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그의 연구실 문을 두드려도 좋을 것이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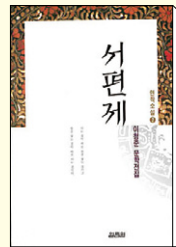


임승빈 교수가 추천하는  
청춘의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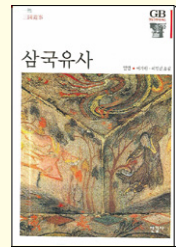
유리알 유희  
헤르만 헤세

흔히 헤세 문학의 완결판이라 칭할 정도로 유려한 문체를 자랑하며, 헤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하다. <명인 요제프 크네히트의 전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소설은 2400년경 카스탈리엔이라는 학자들의 나라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다. 인간의 정신적 황폐를 초래한 20세기를 비판하고 있으며, 최고의 지성에 도달한 헤세의 사상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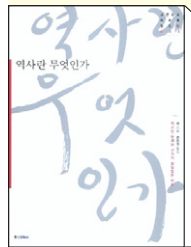
남도사람 연작  
이청준

이청준 문학의 백미라 불리는 <남도사람> 연작은 <서편제>와 <소리의 빛>, <선학동 나그네>, <새와 나무>, <다시 태어나는 말> 등 총 5편의 소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인 '한(恨)'과 우리의 소리, 억압과 예술을 남도라는 공간에 녹여 담아내고 있는 이 작품들은 이후 <서편제>, <천년학> 등의 영화로 제작되어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삼국유사  
일연

삼국시대를 논하는 두 개의 역사서 중 <삼국사기>가 합리적이고 공식적인 자세를 취한 정사라면, 일연의 <삼국유사>는 보다 초월적이고 종교적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라 할 수 있다. 민중의 의식 속에 흐르는 역사의식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고대문학의 정수인 향가 14수가 실려 있어 문학사적 가치 또한 높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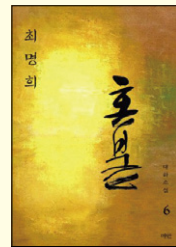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

저자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강단에서 강연한 것을 묶어 출간된 책으로,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연속적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한다. 역사를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지, 현대명명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 등이 담겨 있으며, 1960년대에 출간된 저서임에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장 폴 사르트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인간의 가치와 의미, 존엄성 등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과 통찰이 요구되던 시점에서 1945년 사르트르의 파리 강연 내용을 엮은 책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가치를 만드는 기도이자, 그 자신을 통해 가치가 발생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며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혼불  
최명희

작가가 17년 동안 써 내려간 대하소설로, 일제 강점기 때 무너지는 가문을 지키려는 중부 3대의 이야기와 당시의 풍속을 바탕으로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숨결, 염원과 애증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한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998년 암투병 중이던 작가의 사망으로 1996년 간행된 판이 최종본이 되었다.

# 실천 實踐

세상을 밝히다

사회와 지역에 봉사하는 공존의 가치와 드넓은 세계를 꿈꾸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는 청주대학교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34

지역과 어깨동무  
청주대학교,  
충북 체육의 대표선수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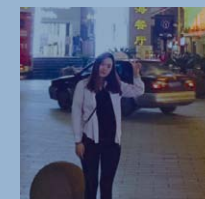
36

지식과 재능의 선순환  
직지를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 <우리> 제작한  
청주대학교 동문들



38

나의 세계문화 스퀘기  
중국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후기  
중국통상학과 이한솔





# 청주대학교, 충북 체육의 대표선수가 되다

최근 KBS 예능 프로그램 <청춘 FC>, <우리동네 예체능> 등의 출연으로 우리대학 축구부가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우리대학은 현재 축구부 외에도 다양한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며 충북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충북의 대표선수로 뛰며 각종 대회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대학 태권도부, 유도부, 사격부, 탁구부 선수들은 점차 대한민국 스포츠를 빛나게 할 보석들이기도 하다.



## 지역에서, 전국에서 종목마다 이어지는 눈부신 성과들

스포츠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 속에서 한때 프로 선수들과 그들의 경기에만 머물렀던 세간의 관심이 이제 준 프로 선수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아마추어와 프로 스포츠의 중간지대라 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현장은 스포츠 마니아에게 신선하고도 매력적인, 그러나 아직은 낯선 신세계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진면목을 보여주었던 우리대학 축구부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조민국 감독과 이을용 코치를 새롭게 영입한 축구부는 작년보다 더욱 강력한 팀으로 부활했고, 이에 더해 2016년 상반기에는 유도과 태권도, 사격, 탁구부가 함께 두각을 나타내며 각종 대회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고 있어 충북 지역 스포츠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축구부는 2016년 U리그 3권역 경기에서 초반 5경기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 상승세를 탔고, 7월 현재 3권역 8개 팀 가운데 3위를 달리고 있다. 태권도부와 유도부는 대표선수 선발대회를 겸한 전국대회에서 단연 앞섰다. 또 창단한 지 3년이 막 지난 사격부는 단기간에 매서운 실력을 보여주며 돌풍을 일으켰다.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 은, 동메달을 두루 휩쓸면서 대학 사격부의 신흥 최강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창단한 탁구부는 각종 대회 4강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진정한 엘리트 교육이 만들어갈 체육인의 새로운 미래

이렇듯 우리대학 선수들은 다양한 경기무대 위에서 스포츠 충북을 넘어 스포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기대주로 성장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대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체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운동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 비옥한 토양을 발판으로 대학 스포츠의 신흥명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우리대학 소속 선수들 대부분은 오는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전에서 충북 대표로 뒀 예정이어서 충북의 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가 갖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학과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스포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선수들 개개인을 '수업에도 충실한 운동선수'로 변모시키는 것이 그 시작이며, 이는 체육인의 미래설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이 되고 있다. 선수 생활 이후의 삶을 담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선수들이 스포츠 관련 전문지식을 통해 지적 수준과 경험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노력은 오직 1등만을 지향하는 기존의 엘리트 스포츠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진정한 엘리트를 양성하는 전인적 스포츠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운동과 교육 커리큘럼을 병행하며 채워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신지식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융복합 스포츠 전문가. 우리대학 선수들이 미래에 만날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④

### 종목별 최근 주요 성적

- 축구** 2016 U리그 3권역 3위(7월 현재)
  - 6승 3무 2패(11경기)
  - 전국주계대학축구연맹전 (7월 25일 현재)
    - 8강 진출 확정(전국체전 충북대표 출전권 획득)
- 사격** 제11회 대통령경호실장기 전국사격대회
  - 금메달 1개(권총부문 임동훈)
  - 은메달 2개(공기권총 단체전, 50m 권총 단체전)
  - 동메달 1개(10m 권총부문 지현준)
- 제46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 은메달 2개(권총부문 임동훈, 50m 권총 단체전)
  - 동메달 2개(공기권총 지현준, 스탠다드 권총 단체전)
- 제4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 금메달 1개(50m 권총 단체전)
  - 은메달 1개(50m 권총 개인전 임동훈)
  - 동메달 3개(공기권총 단체전, 스탠다드 단체전, 스탠다드 권총 지현준)
- 태권도** 제51회 대통령기 전국단체태권도대회 겸 2017년 국가대표 선수선발 예선대회: 종합우승
  - 금메달 3개(-54kg급 최진형, -58kg급 문지수, -74kg급 송영진)
  - 은메달 1개(-80kg급 장시준)
- 제43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 금메달 2개(-54kg급 최진형, -58kg급 문지수)
  - 동메달 1개(단체전)
- 제46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단체태권도대회 겸 2017년 국가대표 선수선발 예선대회: 종합 4위
  - 금메달 1개(-80kg급 장시준)
  - 은메달 1개(-54kg급 권희도)
  - 동메달 2개(-54kg급 최진형, +87kg급 김태훈)
- 유도** 제21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겸 아시아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파견대표단 선발전
  - 은메달 1개(-100kg급 신재현)
  - 동메달 1개(+100kg급 박병민)
- 제9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 금메달 1개(-66kg급 윤용호)
  - 은메달 1개(남자 대학부 단체전)

### Mini Interview

## 스포츠 교육의 정식으로 융복합 스포츠 전문가를 키워내겠습니다

체육교육과 학과장 김현일 교수



**최근 청주대 선수단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어떤 변화가 이러한 성과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대학은 1980년대부터 엘리트 체육인의 산실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포츠 DNA가 있는 대학이지요. 최근의 성과들은 선수들의 기량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도 있지만, 각 팀의 지도자들이 FM대로 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학과장이 되면서 훈련 시간 못지않게 선수들이 학과 수업에도 참여하게끔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만 할 줄 알지,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든 인식의 장벽을 깨기 위해서는 선수 마다의 실력과 자존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훈련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실력과 성적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훈련시간 집중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청주대학교 소속 선수들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은 가히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벤트 개최 노하우, 선수 경기력 등이 세계 4위권이나니까요. 이러한 능력들이 과학기술이나 기타 분야와 만난다면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는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대학은 스포츠의학이나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의 스포츠 융복합 분야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선수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비 개발이나 팀 매니지먼트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스포츠 산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5인의 동문들, 직지의 평등사상을 스크린에 옮기다

직지를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 <우리> 제작기

연극영화학과 동문들, '직지'와 '영화'를 위해 모이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으로부터 직지에 대한 짧은 영상물 제작을 의뢰 받은 채승훈 동문은 단숨에 56페이지 분량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다. 오랜 시간 동안 직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그는 직지의 송고한 뜻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곧 동문들을 불러모았다. 그의 오랜 동기이자 영화 <파이란>, <강원도의 힘>, <짜짜> 등의 촬영 감독으로 활약한 김영철 감독이 자신의 스태프들과 함께 기꺼이 촬영을 맡아주었고, 경민채 동문이 편집을 담당했다. 황의권 동문과 김기훈 동문은 제작을 맡아 살림을 책임졌다. 이렇듯 감독과 배우부터 촬영, 편집, 기획, 총괄 PD에 이르기까지 25명의 연극영화학과 동문이 오로지 한 편의 영화를 위해 뭉친 것이다. 우리대학 동문을 제외한 다른 배우와 스태프들의 힘까지 모아져 러닝타임 1시간 34분짜리 영화 <우리>가 탄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영화 <우리>는 과거 속의 직지를 현재화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중국으로 가 부처의 말씀을 채록한 백운화상, 금속활자로 직지를 간행한 석찬과 달잡, 그리고 시주를 한 비구니 묘덕의 과거 이야기에 더해 글 쓰는 강패와 지체부자유자의 현재 사랑 이야기가 시공을 넘나들며 펼쳐진다.



직지(直指)의 고장 청주에서 드디어 직지를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가 탄생했다. 우리대학 연극영화학과 동문 25명이 모여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에 얽힌 이야기를 스크린에 옮긴 것이다. 많은 이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초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에는 나눔과 평등의 숨은 이야기를 간직한 직지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한 최초의 사례를 만든 연극영화학과 동문들. 그들의 아름다운 열정도 영화 속에 오롯이 담겼다.

청주이기에 만들 수 있는 영화, 그래서 더 특별한 영화 <우리>

영화 <우리>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예산 1천3백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영화였기에 모든 스텝은 재능기부로 제작에 참여했다. 달잡 역을 맡은 홍진웅 동문(83학번), 석찬 역의 김광영 동문(90학번), 이번 작품을 위해 삭발 투혼을 보여준 묘덕 역의 권유진 동문(07학번)을 비롯한 우리대학 영화인들의 열정이 아니었다면 턱없이 부족한 제작비용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곧바로 10월부터 캐스팅 작업과 함께 사람들을 모은 제작팀은 드디어 12월에 과거 장면부터 촬영을 시작해 올해 2월 16일 마지막 촬영을 마쳤다. 예산이 거의 없다 보니 채승훈 동문과 스태프들은 하루에 2시간씩 자며 촬영 16회차 만에 모든 컷을 만들어냈다. 청주이기에 직지 영화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청주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 제작이 가능했다. 사찰 씬을 찍었던 충남 공주의 마곡사를 제외한 영화 속 모든 배경은 청주 시내였다. 연극과 영화를 좋아하는 식당주인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주었고, 청주지역 한 유지의 도움으로 숙소문제를 해결했다. 채승훈 동문이 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나눔과 평등이라는 화두를 청주시민들 역시 깊이 공감하는 듯이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영화 제작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현재 편집작업을 마치고 후시 녹음과 음악, 화면조정, 자막 등의 후반 작업만을 남겨 놓고 있는 <우리>. 이 영화의 특별한 가치에 뜻을 같이하기로 한 녹음실이 무상으로 작업을 해주기로 했지만,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 후반 작업 진행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청대인의 저력과 열정으로 달려온 만큼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올해가 가기 전 동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만든 이 영화를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



영화 <우리> 제작비 후원을 위한 모금에 청주대학교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채승훈 감독 010-2751-3873  
김영철 대표 010-5351-5397  
김기훈 PD 010-5466-7774

**후원계좌**  
농협 301-5351-5397-51  
(예금주: 김영철(동우필름))

Mini Interview

### 직지의 온전한 뜻 깨달으며 지난 추억과 시간을 담아 만든 영화, <우리>

영화 <우리> 감독 채승훈 동문(연극영화학과 85학번)



직지를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과거와 현재가 넘나드는 영화로 이해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요. 현재의 인물로 글 쓰는 강패와 입으로 글을 쓰는 장애인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직지에 대해 글을 쓰는 가운데, 과거의 인물 석찬과 묘덕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지요. 현재의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누구든 작가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역사를 책임지는 한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려시대에 평균 수명이 30세였다는데, 백운화상은 50대 때 중국 원나라로 건너가 부처님 말씀을 채록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일이었겠지요. 직지가 세계 최고이고 최후인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함께 공유하라는 뜻에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영화에서 그걸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청주대학교 동문 영화인들의 재능기부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감독님의 영화 인생에서 이 작품은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시나리오를 완성하자마자 제 동기 김영철 촬영감독에게 가장 먼저 보여줬더니, 좋은 시나리오다 어렵지만 해보자는 문자가 왔어요. 김영철 감독이 흔쾌히 수락하지 않았다면 이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동기와 선배배들을 믿었고, 또 함께할 힘이 필요했습니다. 대학시절 '22세기 르네상스'라는 모임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모임 출신들이 지금 영화판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이번 일로 다시 뭉치게 된 셈이죠. 사실 이런 것이 진정한 문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연극영화학과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재능기부로 일을 진행하려면 정말 어려운 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개인의 무한한 희생을 따르지요.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함께해준 동문들, 또 스태프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모교의 변동성 과장님께서 몸과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셨어요. 아직 후반 작업이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기회를 동문들과 함께 좋은 결실로 맺을 수 있을까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이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가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 직지의 나눔과 평등사상을 제대로 알리고 싶고, 국내외 영화계 출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지, 직접 가리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본곤 하는데, 이번 작업은 저에게 그 대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많이 어렵고 외로웠지만, 그래서 더 행복했습니다.





### 중국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후기

중국은 미국과 함께 경제적, 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강대국이다. 그만큼 중국 시장과 중국어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대, 우리대학은 중국의 주요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학기부터 두 학기 동안 중국 광둥성 담강시에 위치한 영남사범대학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한솔 학생에게서 세계 경제의 중심, 중국에서 경험한 다양한 문화와 추억들을 들어보았다.

##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 중국에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다

이한솔  
중국통상학과 3학년



###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 하나로 교환학생에 도전하다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생 시절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게 되면서부터였다. 점점 성장해가는 중국을 보며 그들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후 전공도 중국통상학과를 선택하게 됐다. 대학 입학 후 중국의 경제와 문화 등을 공부하면서 중국을 향한 나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고, 때마침 학교에서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소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증이 컸던 내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신청을 했다. 면접을 보던 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중국어로 준비해간 자기소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나왔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나의 간절한 소망과 의지가 통했는지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중국 영남사범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고, 학생비자와 비행기표도 준비했다.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오직 설레는 마음 하나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중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 중국어와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법을 터득하다

영남사범대학에서 첫 수업을 받던 날, 영국, 베트남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보게 됐는데 내게는 너무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동안 한국에서 공부한 건 아무 소용이 없나 싶을 정도였다. 비록 첫 시험부터 좌절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하나 배워 나가기로 다짐했다.

유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중국어 듣기와 말하기, 종합수업, 요리수업, 태극권 수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중국어 수업은 중국 학생들이 적은 편이라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중국어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요리나 태극권 수업 때는 중국인 친구들과 많이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 내가 공부했던 학교에는 한국인이 별로 없어 나는 언제나 중국인 친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가는 곳마다 '你是韩国人吗?(너 한국인이니?)', '很漂亮!(매우 예쁘다!)' 라고 말하는 중국인 친구들 덕분에 학교생활을 더 신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중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 조금씩 중국어가 잘 들리기 시작했다. 들리는 말이 많아지니까 입으로 할 수 있는 말도 점점 늘어났다. 들었던 말을 기억해두었다가 자꾸 다른 상황에 적용해보면서 중국어 실력을 키워갔다. 중국 친구들의 도움 역시 중국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 중국어는 성조 하나에 뜻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데, 중국 친구들이 내가 중국어 발음이나 성조를 틀릴 때마다 그런 부분을 고쳐주었다.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현지인과 직접 이야기하고 듣는 것이 왜 더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 언어를 넘어 또 다른 중국과 마주하다

중국에는 재미있는 문화가 몇 가지 있다.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수업이 없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에는 문을 닫는 가게도 많고 길거리에도 사람이 거의 없다. 중국의 여유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중국의 독특한 기념일 문화도 인상적이었다. 중국에는 중국어 발음과 비슷한 날을 특별한 기념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5월 20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의 중국어인 '我爱你(워아이니)'와 발음이 비슷해서 남녀노소, 친구, 연인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날로 유명하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체험 외에도 나는 중국에 머무는 동안 최대한 많은 여행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게임여행이었다. 교환학생으로 함께 온 친구와 단둘이 떠나는 첫 여행이라 두려움이 컸지만 정말 좋은 추억이 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중국 기차의 침대석을 끊어 잠을 자거나 누워서 목적지까지 갔던 일이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자다가 소지품을 도난 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채로 7~8시간 동안 달려 게임에 도착한 순간, 그 동안의 긴장이 풀리는 동시에 우리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길을 물어보려고 다가간 사람과 친구가 되어 아직까지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여행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 중국에서 새로운 도전과 경험의 가치를 깨닫다

어느 날 하루, 태극권 수업을 함께 들던 친구와 자전거를 탄 적이 있다. 처음에는 막연히 힘들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자전거로 달리다 보니 정말 기분이 상쾌해졌다. 담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람, 화창한 날씨에 처음의 걱정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5시간 가량 자전거를 타고 나니 비록 몸은 지쳤지만 그때 느낀 뿌듯함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 만약 그때 내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면 소중한 경험 하나를 놓쳤을 것이다. 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혹시 아직까지도 실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더 큰 세상으로 나가보라고 말하고 싶다. 중국에서의 지난 생활이 지금의 내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중국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한국어 보조교사 프로그램 등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 우물 안 개구리 같았던 내가 중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한층 더 성장했듯 더 많은 친구들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①



중국 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자격	총 평균 평점 2.6 이상인 재학생
교육내용	한 학기 동안 중국 자매대학에서 언어연수 또는 정규과정 수학
학점인정	현지 학교 성적표 및 수료증으로 본교 12학점 인정
장학지원	① 교환학생- 본교 등록으로 중국 현지 수업료 대체 장학유학파견- 연수 수료 후 다음 학기 본교등록 시 한 학기 등록금 중 100만 원 감면 ② 파견 후 수학 보조금 150만 원 지급





더 뜨겁고 진하게  
그래야  
여름인 것을

더 뜨겁고 뜨거워져라.  
그래야 내 색이 도드라질 테니.  
더 크게 그늘을 내어주어라.  
너의 너그러움을 배워 초록으로 살 테니.

온몸으로 여름을 받아내야지.  
그래야 여름인 거지.  
그래야 여름을 만든 지난 시간들에게  
덜 부끄럽지 않겠는가.

# 소통 疏通

오늘을 전하다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의 위상을 넘어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중심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학교의 도전과 혁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2

단신뉴스  
청주대,  
특성화사업단 공식 출범 외



44

인물뉴스  
문석기 교수,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선출 외



46

명사들과의 만남  
조현일 (주)그린광학 대표이사  
명사특강 외





### 특성화사업단 공식 출범



우리대학이 학과간 단절 극복과 산학협력 극대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선정한 특성화사업단이 5월 3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기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사업단은 학문 분야 융복합 특성화사업 부문 공공기관 맞춤형 창의융합 인재양성사업단 등 2곳, 산학협력 중점사업에 빅데이터 기반 도농지역 친환경 재생사업단 등

4곳이다. 대학 측은 올해 공공기관 맞춤형 창의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 2억1천5백여만 원과 스마트 사물인터넷(IoT)산학협력 사업단에 5억 원 등 총 20억 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 실질적 혁신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병기 총장은 “사업단이 대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발굴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체제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대학이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을 넘어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 방사선학과, 방사선카운슬러 전문교육기관 선정



우리대학이 충청권 대학 중 유일하게 방사선카운슬러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방사선학과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방사선카운슬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에 선정되어 업무위탁을 협약했다. 방사선카운슬러 교육과정 대상은 방사선학과 전공 2학년 이상의 재학생이며, 교육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총 60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 후 면접 및 필기시험을 거친 최종 합격자에게는 방사선카운슬러 2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 첨단교육혁신시스템 구축



우리대학이 교수 역량 강화와 학생의 지속적인 자기개발 등을 위해 첨단교육혁신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교수들의 최적화된 수업설계와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경력 개발 등을 위해 7억5천만 원을 들여 첨단교육혁신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대학은 기존의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원스톱으로 교수 및 학생 개인의 학습을 체계적이고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된 첨단교육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교육성과환류체계(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Cycle을 기반으로 하는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업별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도출되어 다음 학기에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는 등 맞춤형 학습설계 지원을 통한 최적의 교육의 질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진로탐색 및 설정, 경력 개발, 취업 등 종합적인 자신의 역량 향상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개인의 로드맵에 따라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 및 프로그램 등을 추천받는 환류시스템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교 69주년 기념식 거행



우리대학의 개교 69주년 기념식이 6월 3일 청석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제학과 김성태 교수와 건축학과 김태영 건축학과 교수가 청석학술상을, 건축학과 5학년 정육찬 학생과 영화학과 4학년 황영호 학생이 모범학생 표창을,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인 지적학과 졸업생 박정호 동문이 해외유학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김병기 총장은 “청주대학교가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을 넘어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와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간호학과, 제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거행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5월 4일 청암홀에서 열렸다. 이날 선서식에는 간호학과 3학년 104명 등 재학생과 학부모, 대학 및 병원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선서식은 국민의례, 촛불 의식, 나이팅게일 선서,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론교육과 기본간호 실습을 마친 간호학과 학생들은 병원 임상실습에 앞서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전문 간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했다. 한편, 이날 선서식을 가진 간호학과 학생들은 5월 9일부터 서울 아산병원과 충북대 병원 등에서 임상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 청주대-장춘이공대학 광전정보학원, 국제교류 협약 체결



김병기 총장이 5월 12일 중국을 방문해 장춘이공대학 광전정보학원 국전민(鞠殿民) 총장과 양교 발전 등을 위한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장춘이공대학 광전정보학원 학생은 앞으로 2년의 학사과정을 마친 뒤 우리대학에 편입하거나 교환학생, 석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태양광에너지 전공과 관련해 광전정보학원이 자국과 외국의 합작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우리대학이 참여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두 대학은 무역학과, 회계학과, 공예디자인학과, 태양광에너지학과 의 교수진 교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안과, 발전기금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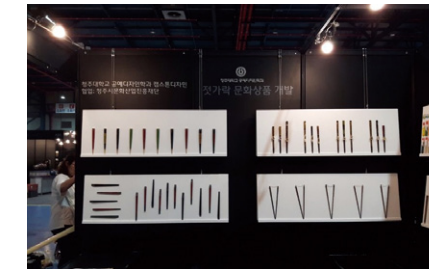
5월 16일 우리대학은 청주 서원구 사창동 소재의 김안과와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김병기 총장과 김안과 김병호 원장은 이날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총장 접견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병호 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김안과가 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주대에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김병호 원장의 뜻 깊은 기부에 감사드리며,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소중하게 사 용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기호학' 수강생들, 단행본 <삶, 나눔, 배움> 제작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교양과목인 '문화기호학'의 수강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책으로 엮고, 6월 15일 종합강의동에서 조출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삶, 나눔,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380쪽 분량으로 제작된 이 책에는 81명의 수강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여행, 가족, 학교, 일상, 친구 자연 등을 소재로 한 개인의 경험담과 느낌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담아냈다. '문화기호학' 김상태 교수는 “이 책은 한 학기 동안 문화에 대해 함께 고민한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 공예디자인학과, 서울국제공예아트페어 참가



우리대학 공예디자인학과가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서울국제공예아트페어에 참가했다. 6월 23~25일까지 서울무연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서울산업진흥원이 공예산업 저변확대와 우수공예품 홍보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우리대학은 국내외 70개 기관 중 전국 대학에서 유일한 대학 팀으로 참가했으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한 독창적인 젓가락 문화상품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 100여 점을 전시했다.

###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정비 응시자격 획득



항공기계공학과가 개설 4년 만에 항공정비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항공정비사 면허는 항공기 정비 실무경력 4년 이상 또는 전문교육기관을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는 항공정비사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증이다. 우리대학은 그동안 항공정비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개설하는 등 내실있는 이론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번 자격 획득으로 항공기계공학과 학생들은 교육과정 수료 후 전학년 성적표와 정비실습 확인증을 발급받아 교동안전공단에 접수하면 항공정비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수소식



**문석기 교수,**  
**충북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회장 선출**

환경조경학과 문석기 교수가 지난 4월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회에 서 충청북도 설문식 정무부시장 등과 함께 공동 회장에 선출됐다.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1999년 '충청북도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로 창립되어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고 민·관 거버넌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회장 체제로 개편됐다. 한편, 문석기 교수의 임기는 올해부터 2년간이다.



**김찬석 교수,**  
**한국PR학회 학술대회**  
**참가**

광고홍보학과 김찬석 교수가 5월 20일 우리대학에서 열린 한국PR학회의 '2016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김찬석 교수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PR학회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상생을 위한 PR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입체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특별 기획 세미나와 한국PR연구 20년 중간 발표, 학회가 선정한 베스트 PR 사례 발표, 시상식 등도 함께 진행됐다.



**김혁수 교수,**  
**국제레저포럼 참가**

호텔경영학과 김혁수 교수가 5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국제레저포럼'에 참가해 카지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혁수 교수는 이번 포럼에 참석해 한국 도심형 카지노 산업의 발전전략과 일자리 창출 등 관광레저 산업 전반의 로드맵을 알리는 한편, 협회 측은 카지노, 관광레저,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의 관광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후원했다.



**장경민 교수,**  
**연극 <살다 보면> 연출**

장경민 연극학과 교수가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단 시민극장의 연극 <살다 보면>을 연출했다. 충북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5월 25일 충북 옥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스페인의 단막희곡 <원 파인 모닝 웬 더 선 샤인(One Fine Morning When the Sun Shines)>을 각색한 것으로, 2012년 청주 시어터제이 극장에서 처음 공연된 후 서울 대학로와 통영 연극예술축제, 청주 예술의전당 등에 초청되어 공연된 바 있다.



**김종구 교수,**  
**청주시 소상공인**  
**성공전략포럼 참가**

경제학과 김종구 교수가 5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청주시 소상공인 성공전략 포럼'에 참가했다. 이날 김종구 교수는 '청주시 산업별·읍면별 산업구조와 경쟁력 발표'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과 주민 등 민간이 주도하는 상권관리기구인 가치 '청주시상권관리위원회' 설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정님 교수,**  
**이데일리 문화대상**  
**심사위원 위촉**

연극학과 도정님 교수가 제4기 이데일리 문화대상 심사위원단에 위촉됐다.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전통, 뮤지컬, 콘서트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심사에서 도정님 교수는 무용 부문 심사를 맡아 최고의 작품을 선별하게 된다. 이데일리 문화대상은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한국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 공식 출범했으며, 내년 2월 제4회 최우수작과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호표 교수,**  
**청주미래도시연구원**  
**창립기념 세미나 주제발표**

관환경영학과 박호표 교수가 6월 2일 청주미래도시연구원 창립 1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드라마시티 청주를 브랜드화 한 한류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박호표 교수는 '아시아 드라마의 중심, 드라마시티 청주'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영상위원회 설립과 드라마시티 청주 브랜드화, 드라마&관광 연계, 창작·교육 사업을 통한 기반 조성 등을 제안했다.



**박종학 교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발기인 참여**

체육교육과 박종학 교수가 7월 12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창립을 위한 총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WMC의 창립총회는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개막일인 9월 2일에 열릴 예정이며, 발기인으로는 이시종 충북지사, 최동환 세계무술연맹 사무총장, 허건식 한국무술총연맹 사무총장, 홍승원 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최충진 대한장애인펜싱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심상렬 교수,**  
**한국조경학회 정책방안**  
**세미나 참가**

환경조경학과 심상렬 교수가 7월 20일 SH공사 본사 14층에서 열린 (사)한국조경학회 세미나에 참가했다. '조경관리의 정책방안 세미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 심상렬 교수는 '잔디 및 잡초 유지관리 경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1972년 설립된 (사)한국조경학회는 우리나라 조경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학회지 및 학술지 발간, 학술 논문발표, 관련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규철 동문,**  
**세라젼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규철(법학과, 87년 졸업) 동문이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라젼'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세라젼 미래전략실 전무로 근무해온 이규철 동문은 세라젼의로기기(베이징)유한공사에 입사해 2011년 외자중견기업 최초로 '저명상표'를 획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중국 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등 중국법인 실적 회복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최왕수 동문,**  
**충북유도회 제33대**  
**회장 연임**

최왕수(건축학과, 76년 졸업) 동문이 4월 25일 충북유도회 제33대 회장에 연임됐다. 최왕수 회장은 이날 열린 선거에 참석한 7명의 대의원 중 4명의 지지를 얻었다. 최왕수 회장은 그간 충북유도회 상임부회장과 제32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두원건설 대표로 재직 중이다. 최왕수 회장은 "충북 유도인의 화합을 이끌고 우리 도에서 열리는 2017년 전국체전과 2018년 전국소년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광철 동문,**  
**성악 마스터클래스 개최**

연광철(음악교육과, 88년 졸업) 동문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JCC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성악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마스터클래스는 세계적인 성악가 연광철 동문이 최대 12명의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개인 레슨을 실시하고, 그들이 성악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2명 중 1명에게는 내년 JCC아트센터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와 레코딩 작업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동문소식



**성일환 동문,**  
**제11대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임**

성일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2012년 수료) 동문이 3월 25일 제11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공군출신 1호 사장인 성일환 동문은 취임식에서 "안전, 보안 등 공항의 핵심기능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1954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난 성일환 신임 사장은 공군사관학교 26기 출신으로, 공군본부 감찰실장,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참모차장, 공군교육사령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남기창 동문,**  
**제28대 청주대학교**  
**총동문회장 선출**

남기창(법학과, 67년 졸업) 동문이 제28대 우리대학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3월 2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남기창 동문은 단독 입후보해 찬반투표를 벌인 가운데, 704명의 동문 가운데 386명의 찬성으로 회장에 선출됐다. 남기창 총동문회장은 "청주대 구성원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으며, 임기는 2016년 4월부터 2년간이다.



**한원균 동문,**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조명 부문 수상**

한원균(연극학과, 2003년 졸업) 동문이 5월 8일 폐막한 서울연극제에서 극단 바버서커스 등이 공동 제작한 연극 <연옥>으로 무대예술상 조명 부문을 수상했다. 한원균 동문은 서로에게 용서받지 못한 범죄를 저지른 두 남녀가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을 담은 이 작품에서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원균 동문은 그간 <코>, <아일랜드>, <현장 검증> 등의 조명 및 무대 디자이너로 활약했다.



**신상구 동문,**  
**계간 <문학사랑>**  
**제98회 신인작품상 수상**

신상구(경제학과, 73년 졸업) 동문이 '한국 노벨상 수상조건 심층탐구-고은 시인을 중심으로'라는 평론으로 계간 <문학사랑> 제98회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충북 괴산 출신의 형토사학자이자 시인, 칼럼니스트인 신상구 동문은 현재 충청문화역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학21> 시 부문 신인작품상, 월간 <한비문학> 신인문학상 평론 부문 등을 수상했다.



**김윤식 동문,**  
**제13회 청주예술상**  
**수상**

김윤식(영화학과, 2012년 졸업) 동문이 영화 <실화>로 다수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청주 출신 영화인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3회 청주예술상을 수상했다. 청주 예술상은 예술문화 발전에 헌정한 공적이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했으며, 창작이나 공연활동의 공로가 지대한 예술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상명 동문,**  
**청주우체국장 취임**

이상명(사회복지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동문이 7월 1일 청주우체국장으로 취임했다. 이상명 국장은 취임사에서 "118년의 전통과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청주우체국이 전국 최고의 우체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이상명 국장은 그동안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창원우체국장, 동천안우체국장, 서청주우체국장 등을 두루 지낸 우정사업 전문가이다.



2016년 5월 ~ 6월

2016. 5. 4

## Now Happy

조현일  
(주)그린광학 대표이사



5월 4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는 조현일 (주)그린광학 대표이사의 명사초청 특별강좌가 열렸다. “철학을 갖고 머리로, 가슴으로 매사에 뜨겁게 임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긴 조현일 대표는 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하는지, 어떤 회사에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철학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NOW HAPPY’라는 강연 주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매사를 장기적으로 보고 믿음을 가지면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다”고 강조하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자부심을 갖고 하면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조현일 (주)그린광학 대표는 우리대학을 졸업한 뒤 1997년 현재의 그린광학을 설립했으며,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대상, 대통령 표창, 광학협회 기술상 등을 수상했고, 현재 청주상공회의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2016. 5. 11

## 문학이 주는 선물

신달자  
시인



우리 시대의 대표 시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신달자 시인이 5월 11일 우리대학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섰다. “100번을 좌절하거나 절망해도 희망 자체는 살아있다”고 강조한 신달자 시인은 “인생에서 잘 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간의 진실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 문학”이라며, “문학이 책 속에서 희망을 말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도 희망으로 접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의 마음을 알아 주는 ‘인간다운 인간’이 됐을 때가 나를 가장 아껴주는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신달자 시인은 1964년 <환상의 밤>이라는 시로 데뷔한 뒤 대한민국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정치용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평택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6. 5. 18

##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윤정수  
개그맨



최근 JTBC <남과 함께2- 최고(高)의 사랑>, <천하장사> 등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개그맨 윤정수 씨가 5월 18일 우리대학 청암홀에서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는 자세로 덤비면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한 윤정수 씨는 “호기심을 갖고 매사에 임하면 하루하루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연히 얻어지는 것은 없다. 모든 일에 도전정신을 갖고 부딪치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면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성공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개그맨 윤정수 씨는 SBS <개그 콘서트>로 데뷔한 이후 MBC 연예대상 쇼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고, 다수의 TV,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2016. 5. 25

## 21세기 경찰의 역할과 비전

김정훈  
충북지방경찰청장



5월 25일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강연자로 나선 김정훈 충북지방경찰청장이 ‘21세기 경찰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젊은 이들이 경찰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 김정훈 청장은 “사회가 세분화, 전문화될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의 역할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며, “과거의 경찰은 정치 예측화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건국경찰에서 구국경찰, 호국경찰로 이어져 오면서 국가 발전에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우수한 치안 시스템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치안한류 붐’이 일고 있다”고 전하며, 학생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에 관심을 갖고 입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훈 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제주 해안경비단장, 경기 평택서장, 경찰청 핵안보기획단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을 거쳤으며, 대통령표창, 근정포장, 홍조근정포장 등을 수여받았다.

2016. 6. 1

## 길이 끝나는 곳에서 등반은 시작된다

이재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6월 1일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6월 첫 강연자로 나섰다. 학생들에게 “용기있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 이재필 전 장관은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살아보고 다시 사는 삶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오늘 강연의 제목처럼 묵묵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길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 된다”고 강조하며, “저는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몸이 불편하고 뒤늦게 공부에 나섰지만 나만의 길을 만들었다.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필 전 장관은 198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노사정책실장, 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홍조근정훈장, 삼애봉사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16. 6. 8

## 행동으로 실천해서 승리하자

최용림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6월 8일, 최용림 국제안보교류협회장이 우리대학의 1학기 마지막 명사초청 특별강좌 강연자로 나섰다. “군에서 생존해야 적과 싸울 수 있듯이 사회에서도 살아남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한 최용림 회장은 “강한 정신력과 체력 등을 바탕으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다. 생각에 치중하다 보면 실천이 늦어지고 후회를 하게 된다”고 밝히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식은 매사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최용림 회장은 육군사관학교 33기로 임관한 뒤 제3공수특전여단장, 제53보병사단 사단장, 특수전사령관 등을 역임했으며, 보국훈장 등을 수훈했다.



# 청주대학교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가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청주대학교의 내일을 위한 기부 및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발전기금 종류

### 대학발전기금\_ 교육환경개선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금으로, 주로 대학에서 해당 기간에 주력하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 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 강한 학부를 위한 선진적 전공 시스템 도입
-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연구소 육성 지원

### 글로벌 캠퍼스 교육환경 구축 사업

- 캠퍼스 국제화 사업
- 교육설비, 기자재 등 확충 지원
- 장애학생 복지시설 확충

### 국제교류 및 국제화 지원 사업

-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학술 교류
-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확대

###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 충북권역 이러닝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 강의실 확충

### 장학기금

재학생들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자가 대학(원)이나 학부(전공) 및 학과 등 장학금의 용도를 정하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 대학발전기금\_ 연구기금

세계적 연구성과를 이끌기 위해 교수들의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금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 대학발전기금\_ 국제화기금

전 세계 90여 개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교류 등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영자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다.

### - 글로벌리더 육성기금

### - 자국 유학생 장학기금

### - 국제 한국학연구기금

### - 세계석학 초청 강연기금

### - 세계경영자 초청 강연기금 등

### 대학발전기금\_ 문화예술기금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및 연극, 영화, 회화, 한국음악, 한국무용,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전공과 학부의 교육, 연구기금으로 쓰이는 기금이다.

### - 공연예술지원기금

### - 연극/영화지원기금

### - 한국음악/한국무용 발전기금

### - 디자인(산업/시각/공예/패션) 발전기금

### - 회화/만화 발전기금

## 기부 방법

### 기부 참여 안내

#### 약정서 작성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작성된 기탁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이체)한다.

####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발전기금 입금계좌로 입금 후 입금내역을 대외협력팀에 전달한다.

#### 직접 방문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방문 후 직접 발전기금 금액 및 용도를 약정한다.

#### 급여 이체

청주대 교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100,000원 단위 이하로 기탁할 수 있다.

※ 유가증권 또는 현물 등 자산을 기탁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하여 학교 담당자가 기부자를 방문함

#### 담당부서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우편번호 : 28503)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Tel : (043)229-8011, 8012

Fax : (043)229-8015

e-mail : obwn@cju.ac.kr

인류 최초 3극점 7대륙 최고봉 등정  
허영호 (청주대 85학번)

삼성전자 디자인그룹 전무  
강윤제 (청주대 87학번)

한국인 최초 세계 50대 성악가  
연광철 (청주대 84학번)

# 세상에 파란을 일으켜라

세계를 향한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청주대학교는 세상에 파란을 일으킬

당신을 기다립니다.

스무살의 푸른심장 **청주대학교**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전국 2위 (2014년 5,000명 이상 사립대) ▣ 30여 개국 164개 해외 자매대학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